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어느 20년 차 지역방송 PD의
유튜브 이용과 성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송 철 민

2022년 2월



어느 20년 차 지역방송 PD의 유튜브 이용과 성찰


지도교수 최 낙 진


송 철 민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송철민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정호 

위 원 이서현 

위 원 최부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2월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역방송 20년 차 PD인 나의 유튜브 경험을 자기민속지학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어 ‘이용과 충족’ 연구모형을 적용한 것이다. 연구자의 유튜브 이용동기는 제주 제2공항이라는 지역 이슈에 대해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반성이다. 지역방송의 경영난 심화로 PD에 의한 탐사 프로그램이 하나둘 사라지는 현실에서 유튜브를 PD저널리즘의 실현을 위한 대안매체로 이용해본 것이다.

유튜브는 누구나 제작자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저널리즘적 장점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확증편향과 가짜뉴스 확산의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를 저널리즘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 또한 높다. 연구자 본인 역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쪽에 속하여 있었으나 유튜브 경험을 통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욕구로서만 존재하던 PD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언론인으로서 PD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방송들로 하여금 유튜브 시스템을 활용한 PD저널리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자기민속지학은 연구자 본인의 개인적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유튜브 경험이 비록 개인적인 것이긴 하나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자가 소속된 지역방송, 특히 지역방송 PD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민속지학 연구는 다른 보조적인 분석방법을 접목해 수행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경쟁적인 미디어들 중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고, 욕구 충족이 강화될수록 그 선택은 반복된다. 이러한 과정을 5단계, 즉 [욕구-동기-기대-이용-충족]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 5단계 모형을 자기민속지학적 기술에 있어 구성의 틀로 사용한 결과 자신의 미디어 경험을 드러내는 데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역방송, PD저널리즘, 유튜브, ‘이용과 충족’ 이론, 자기민속지학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지역방송의 위기, 그리고 PD저널리즘	4
1) 위기의 지역방송	4
2) PD저널리즘의 역사와 가치	8
3) 저널리즘 공간으로서 유튜브	11
2. ‘이용과 충족’ 이론	13
1) ‘이용과 충족’ 이론의 개념	14
2) 국내 연구동향	16
3) 유튜브 대상 ‘이용과 충족’ 연구와 한계	18
3. 자기민속지학	21
1) 자기민속지학 개념과 연구동향	21
2) 자기민속지학 연구의 특징	23
3) 보조적인 연구방법의 활용	24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6
1. ‘이용과 충족’ 연구모형과 자기민속지학의 접목	26
2. 연구문제별 주요 기술내용	29
IV. 연구결과	30
1. 욕구 : 동기를 추동한 사회·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	30
2. 동기 : 나는 왜 유튜브를 하였는가?	33
3. 기대 : 유튜브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하였는가?	37
4. 이용 :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였는가?	40
5. 충족 : 이번 경험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었는가?	57

V. 결론 및 함의	63
참고문헌	68
부록	78
Abstract	80

표/그림 목차

표 1. ‘이용과 충족’ 연구모형	27
표 2. ‘이용과 충족’ 단순화 모형	27
표 3. 유튜브 이용 위한 구매 장비	38
표 4. 유튜브 콘텐츠 리스트	41
표 5. 댓글 주요내용	59
그림 1.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조감도	34
그림 2. 유튜브 이용 모습	56
그림 3. 나의 첫 유튜브 채널	58

I. 서론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분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방송에서 PD는 본연의 연출 업무뿐만 아니라 1인 2~3역(작가, 음악, 종편 등)을 수행해야 해 야근이 일상이기 때문이다.¹⁾ 개인적으로는 2003년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학기도 채우지 못하고 중퇴한 전력도 있다. 그러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덕분에 그해 다시 대학원생이 될 수 있었다.²⁾ 주경야독이 만만치 않았지만 내겐 너무나 즐겁고 유의한 시간이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접하면서 현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방송환경의 변화와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언론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계기도 되었는데 특히 제주 제2공항³⁾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의 만남이 그랬다. 2020년 10월 8일 저녁 7시, 교수 2명과 나를 포함한 대학원생 7명이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에 속한 4개 마을 중 한 곳인 성산읍 신산리를 찾았다. <질적연구방법론> 강의의 일환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해보고 현장에서 연구과제를 찾는 훈련도 겸하는 자리였다.

인터뷰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는데 일부 원생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해 중간 중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마 농사짓고 살림하던 평범한 여성들이 이제는 투사가 되어 쉴 시간도 없이 반대집회에까지 나가야 하는 처지가 딱해보였거나, 공항 건설이 강행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들의 말에서 앞으로 겪게 될 고초가 미리 걱정됐기 때문일지 모르겠다.⁴⁾ 제주라는 한 공간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들의 고통에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생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감정은 좀 더 복잡했다. 지역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동안 뭘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 것이다.

1) 연구자 본인은 2001년 PD 입문 이후 2003년부터 제주민방에 재직하고 있다.

2)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었다.

3) 제주국제공항의 수요 분담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수산1리 일원에 건설될 예정인 신공항이다. 당초 2021년 착공,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4)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으로 전과자가 되고 삶이 파헤쳐진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례가 있다.

나도 한때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다. 제주지역의 이슈를 PD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위클리 프로그램으로 2006년 9월 4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약 9년 동안 방영되었다.⁵⁾ 종영 이후 시사 프로그램은 다시 기획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불만이나 문제의식은 없었다. 오히려 지역방송의 경영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제작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시사 프로그램 폐지는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하였다. 더구나 지역 이슈들을 다루는 건 기자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제2공항 반대주민들과의 만남은 언론인으로서 PD의 역할을 돌아보고, 나아가 PD저널리즘의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PD저널리즘의 장점은 심층성이다. 기자들의 1분 30초 리포트가 담아낼 수 없는 현상의 기저를 건드린다. 30~60분 방송분량 확보를 위해 한두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취재하고, 단순한 팩트 전달보다는 그 구조적인 이유와 대안을 찾는 데 더 주력한다(최영목, 2011).

PD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 나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튜브를 떠올리게 되었다.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없으니 유튜브에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 시사 프로그램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채널명은 <제주발전연구소>⁶⁾이며, 채널 콘셉트는 ‘언론이 외면하는 제주 제2공항 반대주민들의 목소리’이다. 2020년 10월 27일 채널을 개설하여 그로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모두 11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공유하였다.

레거시미디어로 분류되는 지역방송의 제작 시스템에 20년간 길들여진 PD로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것은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다.⁷⁾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 이를테면 ‘위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지역방송과 그 안에서 정체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PD의 현실 등을 돌아보고 또한 PD저널리즘의 구현을 위한 대체수단으로서 유튜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는 그 일련의 내용을 자기민속지학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자기민속지학(auto-ethnography)’은 “연구자가 개인적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을

5) 공교롭게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2015년 11월 10일) 한 달 후 시사 프로그램이 종영되었다.
6) 제주 발전을 고민하는 채널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발전=개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진정한 발전을 생각해보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이름이 탄생했다.
7) 여기서 ‘이용’은 단순한 시청이 아닌 콘텐츠 제작/생산/공유 전반을 일컫는다.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주형일, 2007). 연구자도 그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철저한 주관성을 통해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번 연구가 비록 개인적인 유튜브 경험을 분석하고 기술한 것이긴 하나 그 결과물을 통해 연구자가 소속된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방송 PD들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심층인터뷰나 포커스그룹인터뷰 같은 일반적인 질적분석 방법이 질적연구가 갖는 일반화의 한계를 더욱 보완할 수 있을 테지만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체험을 갖고 있다면 연구 참여자보다 연구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닐 수 있다”는 이은영(2015)의 관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데 자기민속지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종종 다른 보조적인 분석방법을 접목하는 것을 본다. 이는 해당 연구가 갖는 과학적 한계라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성찰하고 그것을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짓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하였다. 유튜브라는 특정 미디어 경험을 풀어내는 데 있어 [욕구-동기-기대-이용-충족]이라는 ‘이용과 충족’ 연구의 이론적 과정을 구성의 틀로 삼은 것으로 이러한 조합, 즉 자기민속지학과 ‘이용과 충족’ 이론의 혼합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다소 생경하고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연구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유재천·김동규, 2016)란 점에서 그 대상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연구주제가 될 수 있으며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방법은 결정되는 것이다. 강준만·전상민(2019)도 지역언론 연구가 미디어에만 집중하는 소위 ‘경로의존’의 덫에 갇혀 있다며 “미디어를 넘어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연구”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지역언론인들한테까지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이 구축된 연구주제를 찾도록 하고 그 적용이나 검증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과 나름의 대안을 자유롭게 펼치도록 하는 것”이 언론학 발전에도 훨씬 이롭다고 하였다. 너무나 공감이 가며 용기를 얻게 되는 지적이다. 나의 이번 연구가 언론학의 발전에 족적을 남기는 그런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 지역방송과 지역방송PD의 현실에 대해 이해를 북돋우고, 나아가 보다 새로운 연구를 위

한 영감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기민속지학적 글쓰기의 특징은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사회·문화적인 지식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른 질적 연구에서 제 3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고 그것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끌어내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다른 것은 인터뷰 대상이 ‘나’라는 사실이다. 또한 선행연구들로부터 이끌어낸 연구주제를 실증하는 그런 것도 아니어서 자기민속지학 연구의 결과물들을 보면 [서론-이론적 배경-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연구결과-결론 및 함의]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논문의 구성을 잘 따르지 않는다. 대신 르포, 일기체, 에세이, 소설, 다큐멘터리적인 글쓰기 등 자유로운 형식이 동원되는데 본고는 학위논문이라는 특성상 기존 논문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방송의 위기, 그리고 PD저널리즘

1) 위기의 지역방송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방송국(혹은 그곳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지역방송’이라 한다. 흔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종교방송, 국악방송, 교통신방송 등도 각각 지역방송을 두고 있다. 지역방송 중에는 본사가 없는 독립방송국도 있으며 지역 케이블 방송사(SO)들도 대부분 자체제작을 하므로 지역방송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역 지상파방송은 KBS 직할국과 MBC 지역 계열사, SBS로부터 프로그램을 일정 정도 공급받는 가맹사 형태의 지역민방, 그리고 독립적인 지역민방인 OBS로 나뉜다. 1980년대 언론통폐합 조치로 탄생한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KBS와 MBC를 중심으로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 오다가 1990년대 들어 SBS를 비롯한 지

역 민영방송체제가 도입되면서 공·민영 이원방송 체제가 정착되었다. KBS는 18개 직할국, MBC는 16개 지역 계열사를 각각 두고 있는데 1991년 12월 9일 SBS가 서울, 경기지역을 방송권역으로 TV방송을 개시했으며, 이후 1도(道) 1사(社) 원칙에 따라 1995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1차), 1997년에는 전주, 청주, 울산, 인천, 2001년(강원), 2002년(제주) 등 네 차례에 걸쳐 지역 민영방송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마다 3개 지상파 방송국이 자리잡고 시청률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방송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KBS의 경우 2004년 지역방송 통폐합을 한 차례 단행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군산/남원→전주, 속초/태백→강릉, 영월→원주, 공주→대전, 여수→순천)⁸⁾, 2020년 3월에는 9개 지역 방송국의 자체제작 기능을 총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한겨레, 2020. 6. 17). 2011년 진주와 창원방송을, 2015년엔 강릉과 삼척방송을 각각 통합한 바 있는 MBC도 이른바 ‘원 MBC’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남은 16개 지역 계열사마저 다시 6개 권역(세종(대전·충북), 강원권(춘천·강원영동·원주), 호남권(여수·목포·광주·전주),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경북권(대구·안동·포항), 제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화 움직임에 대해 KBS와 MBC 모두 적자 경영 해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지역방송이 있어야 본사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지역방송이 본사를 태동시킨 역사가 있는데도⁹⁾ 본사 입장에서 지역방송은 경영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없애도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역방송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지역 민영방송사들의 경우는 더하다. 본사와의 관계가 MBC는 계열사, KBS는 직할국인 것과 달리 지역 민영방송사들은 SBS와 가맹국¹⁰⁾이다. MBC 계열사와 KBS 직할국들은 어려우면 본사에 사정이라도 해보지만 지역민방은 시쳇말로 ‘비빌 언덕’이 없다.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8) KBS의 18개 직할국은 9개 방송총국(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과 9개 방송국(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으로 나뉜다.

9) 부산 문화방송이 1959년 4월 15일 개국하고 나서 2년여 후인 1961년 12월 2일 서울에서 부산문화방송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가 탄생했다.

10) 동맹, 연맹이란 뜻으로 지역민방은 일정 비율 SBS 프로그램을 중계해주고 전파료를 받는다.

되는 것이다. 더구나 SBS는 ‘제 코가 석 자’라며 전과료를 지급해 공생해오던 지역방송들을 떨궈내고 독자노선을 궁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디어오늘, 2020.5.30.).

그런데 지상파 방송 경영여건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나 이른바 ‘중앙방송’은 유료방송을 상대로 한 콘텐츠 판매 등으로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광고수익이 MBC는 5,891억 원에서 2,873억 원으로 52%, SBS는 5,824억 원에서 4,101억 원으로 30% 각각 감소했지만 매출액 전체로 보면 MBC는 같은 기간 7,429억 원에서 6,970억 원으로 7% 줄어드는 데 그쳤고 SBS는 6,821억 원에서 8,603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자본력을 갖춘 ‘중앙방송’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지역방송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지역방송 26곳(지역민방 10+지역MBC 16)의 광고수입은 2010년 4,869억 원에서 2020년 2,470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매출액 역시 6,207억 원에서 4,671억 원으로 1,600억 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 적자를 본 지역방송은 26곳 중 18곳에 달한다(PD저널, 2021.6.18.). 더구나 2023년까지 방송사별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과제인 UHD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역방송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과거엔 한국방송광고공사¹¹⁾가 지역방송에 방송광고 연계판매를 해주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사업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국 2012년 5월 23일부터 미디어법¹²⁾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광고 판매가 경쟁 체제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더 이상 지역 방송에 대한 광고 배정을 예전처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역방송의 경영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물론 ‘결합판매’와 같은 지역방송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방송 광고의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종편과 보도 채널 등이 방송 광고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지역 방송의 광고수입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1)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특히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비리와 결탁을 차단하기 위해 1981년 1월에 설립되었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모든 방송국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이를 통해 걷힌 수수료로 방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 방송광고진흥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역시 지역방송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 KT의 무궁화1호 발사로 촉발된 통신기업의 방송 진출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TV시청을 가능하게 했다.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 생활 속과 재해재난 시 모두 스마트폰(각각 57.2%, 64.6%)을 가장 중요한 필수매체로 선택했으며 심지어 TV 시청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도 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TT 역시 2010년 티빙(Tving)을 시작으로, 폭(pooq), 에브리온TV 등이 서비스에 나서더니 2016년부터는 해외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넷플릭스까지 출시되면서 시청패턴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젠 인터넷과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중앙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방송을 보려고 들지 않는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지역방송사 내부 조직과 구성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전오열과 이희중, 나미수(2020)는 충청·영남·호남권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20년 차 이상 15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사업부서 확대나 방송직 인력의 경영직 전환 배치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이 구성원들의 정체성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지역밀착과 저널리즘의 복원,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주문해 왔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저널리즘의 한 축을 담당했던 PD 탐사프로그램도 하나둘 폐지되고 있는데, 강원민방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긴급경영에 들어가면서 시사 프로그램 <시사Q>를 폐지하고 협찬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다.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심의규정상 협찬이 제한되는 데다 심층 취재가 필요한 만큼 적잖은 시간(통상 3주~4주)과 그에 따른 인력이 요구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방송의 경영난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 선(2021)도 “지역방송에서 패널을 섭외해 구성하는 단순한 토론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정통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 같은 지역방송의 열악한 제작 여건 등을 지적하였다. 결국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지역 PD저널리즘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2) PD저널리즘의 역사와 가치

PD저널리즘이란 말 그대로 PD에 의한 저널리즘을 말한다. 저널리즘은 ‘대중매체를 통해 시사적인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고 논평하는 활동’으로 이는 한때 기자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PD들도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CBS의 <시 잇 나우(See It Now)>(1951~1958)가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 연출자와 기자로 명성을 쌓은 에드워드 머로(Edward R. Murrow)와 방송 연출자인 프레드 프렌들리(Fred Friendly)가 제작한 것으로, 당시 생소했던 텔레비전을 이용해 여러 가지 기술적 실험을 하면서 논쟁적 이슈를 다루었다. 특히 매카시즘의 권력 남용과 그 폐해를 파헤쳐 결국 매카시즘의 종식을 앞당긴 것으로도 유명하다(오원환, 2014).

한국에서는 1983년 2월부터 방송된 KBS <추적 60분>을 국내 PD저널리즘의 시초로 보고 있다. 당초 기획의도는 ‘ENG 카메라의 장점을 활용한 생생한 정보 전달’이었으나 점차 사회고발 성격으로 변화했는데, 2화 ‘한국의 몬도가네’ 편에서는 뱀과 뱀뱀지의 피를 마시는 보신문화를 방송해 화제가 됐다.¹²⁾ 이밖에도 ‘외제 시계 범람’, ‘미아보호 정책의 허점’ 등 당시 굵직한 사회문제들을 다루면서 인기를 얻었으나 전두환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하면서 프로그램 시작 3년 만인 1986년 5월에 폐지되었다(이예진, 2021).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방송가에도 민주화 바람이 일었고, PD저널리즘도 전성기를 맞는다. KBS는 <추적60분>의 후속으로 1987년 10월 25일 <뉴스비전 동서남북>을 신설하였는데 사실 고발에 치우친 <추적 60분>과 달리 사실에 관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다루어 탐사 프로그램으로의 질적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MBC도 1990년 5월 8일 <PD수첩>을 출범시켰으며 SBS는 1992년 3월 31일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하였다. KBS의 <뉴스비전 동서남북>은 1991년 5월 17일 폐지, 1994년 2월 27일 KBS <추적 60분>의 부활로그 맥이 이어졌다가 2019년 8월 30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9년 10월 4일부터는 <시사직격>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신설되어 방송되고 있다.

기자들도 저널리즘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하나 PD저널리즘은 몇 가지

12) 당시 시청률 50%를 기록했고 방송 이후 뱀탕 영업과 코브라 수입이 금지됐다.

점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갖는다. 우선 PD는 특정한 ‘출입처’가 없기 때문에 취재원과 유착관계가 약한 만큼 눈치를 보지 않고 실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분량이 보통 60~70분 정도여서 기자들의 1분 30초 리포트에는 담아내기 어려운 현상의 이면을 깊이있게 파헤칠 수 있다(최영목, 2011). 김연식과 조성호(2008)는 PD저널리즘을 “TV의 영상성과 대중성을 활용해 극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익숙한 프로듀서들이 탐사저널리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도하는 저널리즘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프로듀서의 직능적 성격이 기자저널리즘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강형철(2000)도 “기자들도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지만 PD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탐사 저널리즘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국 탐사보도의 발전에 더 많은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PD저널리즘에서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바로 ‘객관성’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이 PD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객관성 결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김성우(2015)는 경향신문과 <PD수첩>의 ‘가습기살균제’ 보도경향을 살펴본 결과, “신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PD수첩>은 과도한 입장 개입으로 사실과 의견을 철저히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민재(2009)도 지상파 3사의 대표 PD 탐사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익명처리 부분이 지나치게 많고 감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효과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적 보도영상 구성수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PD 탐사 프로그램들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해 왔다. KBS <추적 60분>의 경우 방영 초기부터 자극적, 폭력적 화면과 사생활 침해 문제로 비판을 받았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강력범죄나 미제 사건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선정적 언론형태를 일컫는 ‘옐로우 저널리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MBC <PD수첩>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20대 A 씨를 무주택자인 것처럼 등장시켜 인터뷰해 논란이 된 사건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모르는 PD들이 저널리즘의 영역에 들어와 생긴 일’이란 시각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기자들은 통상 출입처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취재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거나, PD들은 앞서 최영목(2011)

의 언급처럼 특정한 출입처 없이, 사회적으로 이미 알려진 대형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을 들여다보는 시도들을 자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실상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송도 포함된다.

또한 저널리즘의 원칙으로 고수되어 온 객관주의가 ‘좋은’ 저널리즘의 필요조건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기자들이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균형성과 중립성에 기반한 사실 전달에 주력하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오히려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저널리즘이 단순 사건, 사고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비판과 감시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온다(이예진, 2021). 일례로 지난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개발 소식을 기자들은 팩트로 전달하기 바빴지만 실상은 어떠했는가? MBC <PD수첩>이 여론의 못매를 맞으면서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실체를 끝까지 파헤친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PD저널리즘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김연식·조성호, 2008).

따라서 객관성과 주관성은 PD와 기자 각자의 약점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야 할 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연식(2011)은 PD저널리즘을 바라보는 두 집단의 인식이 서로 다르지만 “향후 방송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집단이 상대방의 특질을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하유미(2007)도 “무조건 기자는 심층성이 부족하고 PD는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다”며 “두 집단이 통합되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기자 저널리즘과 PD저널리즘의 조화가 저널리즘의 추구해야 할 방향이며 그런 분위기라야 저널리즘의 가치가 더욱 잘 뿌리내려 공의로운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자 저널리즘은 오늘날 지역방송에서도 충분히 구현된다. 포털에 상당부분 잠식당하긴 했어도 지역주민 중 상당수가 ‘그래도’ 지역뉴스는 챙겨본다. 더구나 뉴스는 기삿거리만 좋으면 품질에 있어 소위 ‘중앙방송’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PD저널리즘은 사정이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방송에서 PD저널리즘은 점차 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언론지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¹³⁾ 이에 본고에서는 나의 유튜브 경험을 성찰하는 데 있어 PD저널리즘을 중심으로, 왜 그것이 동기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저널리즘 공간으로서 유튜브

유튜브는 미국의 다국적 IT 회사,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별다른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 시초는 2005년 2월 페이팔(PayPal)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첸(Steve Chen), 자베드 카림(Jawed Karim)이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것을 이듬해인 2006년 10월 구글이 16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이후 2007년부터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8년 1월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유튜브의 인기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세 미디어로 자리잡았다. 전 세계적으로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신규 동영상 업로드되고, 매일 3천만 명이 방문해 10억 시간 넘게 시청한다. 한국에서도 국민의 무려 95%가 유튜브를 이용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또한 그중 64.2%는 유튜브를 ‘매일’ 이용하며 일평균 이용시간은 83분으로 조사되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유튜브는 이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이자 검색 기능까지 갖춘 초대형 멀티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변현진, 2018).

유튜브는 뉴스 소비채널로도 인기인데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조사 결과 네이버(81.1%), 구글(32.8%)에 이어 유튜브가 31.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뉴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유튜브 콘텐츠 중 ‘뉴스·시사’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다. ‘미디어오늘’이 2018년 7월 유튜브 인기영상 450건(30건×15일)을 조사한 결과 뉴스·시사 콘텐츠가 135건(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코미디·

13) PD저널리즘과 관련해서는 기자저널리즘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주관성, 공정성 등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많다.

오락(71건), 체험·관찰(42건), 음악(29건), 영화(24건), 음식(24건), TV프로그램(20건), 토크(17건), 스포츠(11건), 애니메이션(11건), 게임(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매체 특성상 많은 일반인 크리에이터들이 앞다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일반화되는 추세다. 개개인의 개성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유튜브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목소리를 굳이 기존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유튜브를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열린 표현의 공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주은신, 2020). 하지만 유튜브를 언론매체로 볼 것인지, 혹은 기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의 ‘유사’ 언론활동까지 저널리즘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편향된 정보 제공의 문제다. 지난 2019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해 벌어진 ‘유시민 vs 홍준표’ 유튜브 맞짱토론에서 정보의 편식현상이 이슈가 되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담론들만 접하다보니 상호이해가 어렵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편식은 선호하는 유형의 콘텐츠만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유튜브 자체의 알고리즘에 더욱 영향을 받는데, 이용자들의 전체 유튜브 이용시간 중 70%가 바로 이 알고리즘 추천 영상이다(Roose, 2019).

결국 이런 편향된 콘텐츠에 선택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집단 극화가 강화되면서 이념이나 계층 간 사회 통합을 더 어렵게 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황용석, 2017). 어릴 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받아온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팩트를 인정하지 못하듯, 자신이 속한 진영의 긍정적 뉴스와 상대 진영에 대한 부정적 뉴스에만 노출되어 온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화감독 제프 올롭스키는 그의 다큐멘터리 <소셜딜레마>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SNS의 알고리즘을 상업적이고 비윤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미래를 ‘내전’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결핍과 오해의 누적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나친 비약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지난 2021년 새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은 그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준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글은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주요 통로로도 악명 높는데, 이와 관련해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짜뉴스라고 여겨지는 허위정보를 접하는 매체’ 1위로 유튜브가 꼽힌 바 있다.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유튜버들의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었다. 조회수를 높여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된 그들은 팩트체크도 안 된 정보들을 자극적으로 포장해 진리인 양 퍼뜨리고, 그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맹신하게 된 것이다. 허위정보에 대량 노출된 이용자들은 경찰 발포나 언론 보도는 모두 거짓이고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한 조작으로 받아들인다. 급기야 경찰청으로 대거 물러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 시위에 나선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외친다.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유튜브!”

이러한 부작용의 이면에는 유튜브의 수익배분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유튜브에 채널 개설 후 구독자가 1,000명을 넘고 연간 동영상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수익이 발생한다. 이 중 55%는 채널 이용자가, 45%는 유튜브가 갖는 구조이다(서종민·안진용, 2019).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광고수익이 더 많이 배분되다 보니 자극적이고 심지어 거짓 정보를 이용한 피싱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그것이 유발하는 온갖 사회적인 문제(자극적 영상 무차별 노출과 사회갈등 유발 등)로 인해 유튜브를 저널리즘의 반열에 올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방된 소통’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구글’이라는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해왔다. 그래서 유튜버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고, 유튜브를 하더라도 시간 때우기 정도로 관심있는 영상을 찾아보는 정도의 소극적인 이용에 그쳤다. 그랬던 내가 유튜브를 하기로 한 것인데 왜 다른 미디어도 아닌 유튜브가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였는지 추후 연구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이용과 충족’ 이론

1) ‘이용과 충족’ 이론의 개념

특정 미디어 이용이나 프로그램 시청과 관련, 그 경험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은데 그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이용과 충족’ 이론이다. 카츠(Katz)가 1959년 처음 주장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 미디어를 이용하는 배경에는 저마다 특정한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능동성과 목적지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정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경쟁적인 미디어들 중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고, 동기 충족이 강화될수록 그 선택은 반복된다.

저마다의 동기를 갖고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인식은 지금은 당연해보이지만 그것이 처음 제기된 당시에는 다소 과격적인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와 라디오 같은 전파매체가 막 대중화된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기존 인쇄매체보다 대단해보였고, 그래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도 주로 그 효과의 크고 적음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탄환효과이론, 선별효과이론, 소효과이론 등이다.

물론 카츠(Katz) 이전에도 ‘이용과 충족’에 주목한 연구들이 없진 않았다. 수크먼(Suchman)이 라디오 고전음악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취동기와 이용패턴 연구(1942), 허조그(Herzog)의 라디오 연속방송극 청취동기와 충족감 연구(1944), 베렐슨(Berelson)의 신문 구독동기와 이용실태 연구(1945)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한 최초의 학자가 카츠(Katz)라는 점에서 그를 해당 이론의 시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카츠(Katz)는 당시 매스미디어의 효과가 별반 크지 않다는 ‘소효과 이론’의 대두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시들어가던’ 당시 관련 학계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연구 분야가 많으며 특히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로 그 방향을 돌리자고 제안하였다. 관심을 매스미디어에 두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자신만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경우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용자들의 매스미디어 이용’에 초점을 맞추면 최소한 그 이용자들에게는 미디어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용자의 ‘능동성’과 ‘목적 지향성’이 전제되는데 이는 수용자들의 매스미디어 노출이 주위 상황과 무의식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본 ‘탄환 이론’의 가정과 상반된다. 이 능동성과 목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경쟁적인 미디어들 중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한다는 게 ‘이용과 충족’ 이론의 핵심 논거이다.

이러한 카츠(Katz)의 입장에 많은 학자들이 동조하며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였는데 블룸러와 맥퀘일(Blumler & McQuail, 196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1964년 영국 총선거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제각각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누군가는 투표 지침을 습득하거나 기존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이 두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아예 비정치적인 이유로 TV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블룸러와 맥퀘일(Blumler & McQuail)은 이와 같은 욕구들이 TV에 대한 노출행동에도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며, 결국 시청자들의 태도변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맥퀘일과 블룸러, 브라운(McQuail, Blumler & Brown, 1972)은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동기로 ①기분전환의 욕구, ②대인관계의 욕구, ③개인적 정체성의 확인 욕구, ④환경감시의 욕구 이상 4가지를 제시하였고, 노르덴스트렝(Nordenstreng, 1970)은 텔레비전과 신문의 파업 기간에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조사하여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매스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적 접촉을 위한 욕구’임을 밝혀냈다.

위 연구들이 수용자 ‘욕구’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과 달리 해당 욕구의 충족 여부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우선 카츠와 구레비치, 하스(Katz, Gurevitch, & Hass, 1973)는 이스라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가 수용자의 욕구 충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연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지식과 이해의 확대, 가족과의 유대강화, 문화의 개발과 전수 등 14가지 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카츠와 폴크스(Katz & Foulkes, 1962)는 그동안 과대평가된 매스미디어의 현실도피적 기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밝혀냈고, 바이스(Weiss, 1971)는 매스미디어가 환상적(현실도피적) 기능 또는 정보적(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밖에도 수용자가 매스미디어로부터 ‘충족’을 느낄 경우 그 소스의 실체는 무엇인지(미디어의 내용? 노출 그 자체? 사회적 상황?), 미디어별 특성과 충족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정 욕구는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욕구충족의 결과로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도 ‘이용과 충족’ 연구의 주요 관심분야라 할 수 있다.

2) 국내 연구동향

국내에서도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논문 검색 사이트 DBpia에서 ‘이용과 충족’을 키워드로 조회한 결과 총 171건의 연구가 검색되었는데, 인터넷 관련 연구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SNS 27건, TV 21건, 모바일 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IPTV, VR, 팟캐스트, 소셜커머스 등 뉴미디어와 관련한 연구들도 그 등장이나 활성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구의 흐름을 통해 미디어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것도 ‘이용과 충족’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먼저 김병선(2004)은 인터넷 이용동기를 구조적 요인(미디어 지향적, 선택 다양성)과 심리적 요인(내용 지향적, 상황적 행위 특성)으로 구분해 분석하여 이 두 양면성이 인터넷 이용행위에 내재되어 있음을 실증하였다. 오종환과 최병일(2004)은 인터넷 중에서도 무선 인터넷에 주목, 그 매체적 속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이용동기, 충족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무선인터넷의 산업적 발전 가능성과 그 과제를 제시하였다. 게임과 관련한 연구도 두드러지는데 성윤숙(2003)과 안동근(2005)은 인터넷 게임 동기와 이용행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 대상으로, 박조원과 송요셉(2010)은 대학생 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한편 김채환과 안수근(2004), 조정현과 반현(2006)은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 원숙경과 김대경, 이범수(2007)는 그러한 결과가 전통 뉴스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나 콘텐츠, 이를 테면 영화 사이트(유세경·김미선, 2002), 커뮤니티나 메신저(황하성·김정혜, 2006; 김유정, 2011), 동영상 UCC(성명훈·이인희, 2007; 김채환, 2008), 브이로그·먹방·쿡방 같은 이색 콘텐츠(장윤재·김미라, 2016; 강미정·조창환, 2020), 개인방송(한영주·하주용, 2019; 최화영·하승태, 2021) 등에 대한 연구도 있다.

SNS와 관련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특정 매체별로 사용자의 특성과 재방문 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임연희(2010)는 2010년 대전·충남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트위터 메시지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

해 유형별 만족도와 트위터 규제에 대한 입장차를 조사하였고, 김유정(2011)은 페이스북 이용동기로 추출된 7가지 요소(정체성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유용성, 친구와의 교류, 친구정보검색, 여가선용, 인맥관리, 현실도피, 동참하기, 외로움탈피)가 페이스북 속성에 관한 인식과 이용행태, 개인의 사회관계적 요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김효정(2017)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는 동기요인으로 소통, 오락 추구, 자기표현, 서비스 이용자 신뢰가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는가 하면, 김현정(2020)은 카카오톡의 지속적인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즐김, 정보 공유, 미디어의 강점, 시간 보내기, 사회적 상호작용) 중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이밖에도 SNS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소셜커머스(한은경·송석재·임한나, 2011)나 소셜커머스 광고의 이용동기와 효과, 즉 실제 구매의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

TV는 이제 더 이상 그 영향력이 궁극하지 않은 레거시미디어로 분류되지만, 최근까지도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연구대상이 되어 온 만큼 미디어 자체에 대한 이용동기와 만족도 등을 밝혀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허경호(2005)는 TV중독 문제에 주목, ‘이용과 충족’ 이론의 중요한 개념인 수용자의 ‘능동성’을 ‘시청조절 능력’으로 확장하여 그 하부요인(자제력, 미뤄둔 만족, 목표지향성 등)이 이용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조은영과 최윤정(2014), 서동욱과 이정훈, 이상은(2017)은 TV를 보며 동시에 SNS로 시청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시청’ 현상에 대해 그것이 콘텐츠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특정 계층의 TV 이용행태에 관심을 둔 연구도 많은데, 정재민과 김영주(2007)는 노인들의 TV 이용동기가 시청량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정서적 외로움이나 신체적 불편함이 이용동기와도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조성호와 박희숙(2009)은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이준호(2014)는 미국 중부지역으로 건너간 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TV 이용행태와 이용동기,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밖에도 TV홈쇼핑(김봉철·문주원·최명일, 2014) 등 특정 채널이나 미국 드라마(이재신·노동환, 2008; 임양준, 2008),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신선호·최양호, 2016), 음식 프로그램(홍자경·백영민, 2016) 같은 특정 프로

그램에 대한 시청요인과 만족감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모바일 연구는 2010년부터 나타나는데 이때는 2009년 말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스마트폰 대중화가 막 시작된 시기이다. 박웅기(2010)는 초기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해 이 새로운 기기가 장차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였고, 박인곤과 신동희(2010)는 스마트폰 수용자들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이 단지 오락적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와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특정 사용자나 스마트폰의 특정 요소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현용호(2011)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추구하는 서비스 유형을, 손영준과 김옥태(2011)는 사용자의 이용경험 및 구입동기가 스마트폰의 유용성/용이성 인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밖에 대학생들이 모바일 뉴스 콘텐츠를 구입하거나(이정기·최민음·박성복, 2012) 애플리케이션 이용동기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3) 유튜브 대상 ‘이용과 충족’ 연구와 한계

그렇다면 유튜브를 대상으로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주지혁(2019)은 유튜브 구독자들의 이용동기에 의례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가 있으며 이 두 가지 동기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은선과 김중인, 김미경(2020)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동기가 시청 전과 시청 동안에 서로 차이가 있으며 유튜브에 대한 친밀감 역시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내었고, 윤지영과 유지윤, 이장석(2020)은 유튜브 콘텐츠 유형 중 하나인 브이로그와 관련, 이용 동기(습관/시간보내기, 정보추구, 오락/휴식, 관음주의)와 이용자 특성(개방성, 감정적 동일시)이 만족도에, 또 이 만족도는 다시 지속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진종우(2021)는 유튜브의 이용동기를 3가지(정보동기, 긴장해소 동기, 시간보내기 동기)로 보고 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기별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논문 검색 사이트 「DBpia」에서 ‘이용과 충족’을 키워드로 조회한 결과 검색된 유튜브 관련 연구는 위 4건이 전부이다. 화제성이나 관심도에 비해 이상하리만치 그 수가 적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유튜브가 기존 미디어와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은 “누구나 생산자(제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순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제작자) 입장에서 ‘이용과 충족’ 연구를 해봄직한데 이런 유형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추측컨대 이용동기나 만족도, 혹은 그 둘 간의 상관관계가 더 이상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용과 충족’ 이론은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미디어가 선호되는 이유를 “기존 미디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용동기의 대체충족”이라는 관점에서 곧잘 적용되곤 했는데(Nelson, 2018: 윤지영·유지윤·이장석, 2020), 유튜브라고 해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실제로 위 국내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유튜브 이용동기는 습관/시간보내기, 정보추구, 오락/휴식, 관음주의(윤지영·유지윤·이장석, 2020)나 정보동기, 긴장해소 동기, 시간보내기 동기(진종우, 2021) 정도로 TV 등 기존 미디어들과 비교할 때 그다지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생산자(제작자)로서의 수용자 연구와 관련. 그들의 이용동기나 충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선 역시나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생산자(제작자)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유튜브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가 미진한 원인이 아닐까 싶다. 단순 수용자(다른 이의 콘텐츠를 찾아보기만 하는 이용자)는 전 국민이 모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생산자(제작자)이기도 한 이용자의 경우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 양적연구가 보이는 한계는 또 있다. 단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하더라도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영역은 넓다. 이를 테면, 앞서 ‘이용과 충족’ 이론의 관심분야가 ①이용동기와 ②만족도, 혹은 그 두 변인의 상관관계 말고도 ③욕구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든가 ④‘충족’을 느끼게 하는 소스의 실체, ⑤미디어별 특성과 충족 간 관계, 그리고 ⑥욕구충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였는데 뒤에 4가지(③, ④, ⑤, 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매체 환경에서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는 있지만 정작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분야인 것이다. 특히 ‘동기’만 주목하고 그것을 유발시킨 ‘욕구’는 통상 ‘동기’와 같은 뜻으로 이해돼 그것이 형성된 사회구조적 요인은 간과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욕구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미디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 초기 연구자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이은선·김중인·김미경, 2020). 따라서 ‘이용과 충족’ 연구의 과제는 그동안 소홀하게 다뤄져 온 분야로 연구영역을 넓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주제들 역시 앞서 지적한 생산자(제작자) 대상 연구의 한계점과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같은 양적연구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의 주요 논거가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를 알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설문문항에 올바르게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카츠 등(Katz et al, 1974)이 ‘이용과 충족’ 연구의 방법을 두고 “자신의 관심과 동기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인지적인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로부터 그 목적들을 추출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엘리엇(Elliott)은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동은 보다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으며(Elliott, 1974: 차배근, 1986), 호윗(Howitt)은 “서로 다른 수용자들의 속성과 서로 다른 매스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수용자들의 욕구를 모두 열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Howitt, 1982: 차배근, 1986). 자신의 미디어 환경과 선택적 미디어 이용행위에 얽힌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다. 맥루한(McLuhan)도 “미디어가 우리의 감각을 특정한 방식으로 마비시키거나 자기 최면 상태로 유도”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McLuhan, 2011: 이동후, 2016). 이러한 이유로 이론으로서 ‘이용과 충족’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바로 질적연구의 확대인데, 그래야 “객관성과 함께 미디어 행위에 개입하는 개인 주관성에 대한 이해도 가능케 하는 균형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정기, 2016). 대표적인 질적연구 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주제, 즉 나의 유튜브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나’를 심층인터뷰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곧 ‘자기민속지학’이다. 지금까지 ‘이용과 충족’ 연구의 방법론으로 질적연구(심층인터뷰)가 전체적으로(손승혜, 2002), 혹은 일부(임정수, 2006) 적용된 경우는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자기민속지학’으로 시도된 적은 없다.

3. 자기민속지학

1) 자기민속지학 개념과 연구동향

‘자기민속지학’이란 용어는 1930년대부터 서구에서 사용되었는데 원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를 가리켰다. 예컨대 스스로가 인디언인인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인디언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짐작하다시피 통상 미개발 국가나 도시의 경우 연구자를 배출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 이 자기민속지학은 소수의 연구에 그쳐 잊혔다가 1990년대 들어 현재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Hayano, 1979; 주형일, 2013).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민속지학은 ‘민속지학’의 지류이나, 연구대상이 민속지학의 경우 제3자인 반면 자기민속지학은 ‘연구자 자신’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기 자신을 연구한다는 것이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나, 보흐너(Bochner, 2001)는 “사회적 맥락과 무관한 개인의 목소리란 있을 수 없다”면서 자기민속지학이 연구자 개인의 삶을 다루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 대한 탐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형일(2007)도 “과학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창조적 탐구로서 특정 주제나 특정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사용한다.”는 과학 신학자 폴킹혼(Polkinghorne)¹⁴⁾의 실용적 연구관을 인용하며, 자기민속지학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과학적 전통을 다소 거스르더라도 연구방법으로서 충분히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사회과학적 전통이란 자연과학처럼 실증주의를 중요시하고,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강조하며 철저한 제3자로서의 연구자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역사학자이자 사상가인 카(Carr, 1961)는 이러한 경향을 사회과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일찌감치 지적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래서 완전한 객체가 될 수 없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외

14) John Polkinghorne(1930~2021) 영국의 이론물리학자이자 신학자, 성공회 사제로 과학과 종교 관계 분야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꼽힌다. - 위키백과 中

판 바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독수리 혹은 사열대에 있는 귀빈으로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러한 시도조차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객관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검증만 권장되는 게 오늘날 학계의 분위기인데 이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분야가 바로 자기민속지학이다. 인간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오로지 자연과학의 엄밀함과 객관성을 들이대는 맹목적 실증주의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연구 대상과 강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질적연구의 지나친 객관성 추구경향에 대한 저항 속에 1990년대부터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적/질적 두 가지 정형적인 연구방법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¹⁵⁾ 인간 내면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유의미한 사회·문화적 담론으로 연결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소개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내 자기민속지학 연구의 개척자로 볼 수 있는 주형일(2007)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모색>이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연구에서 당시 외래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시대상을 살펴보았다. 물론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이다.

이처럼 자기민속지학으로 대중문화에 천착한 연구가 더 있는데 특히 강연곤(2011), 한우리(2012), 김환희(2016), 박지훈(2018)은 스스로가 특정 대상에 대한 ‘팬’으로서, 한국 사회의 팬 현상과 그 속에서 갖게 되는 정체성과 심리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인디언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인디언 사회를 연구하면서 완전한 객관적 관찰자가 되기 어렵듯 대중문화 역시 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인식에서, 더구나 해당 대중문화가 평소 자신의 관심분야란 점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자기민속지학이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강연곤, 2011).

미디어 관련 연구가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오종서, 2011; 김영찬, 2011; 임성택, 2011; 안 진, 2015; 전규찬, 2014). 이 중 안 진(2015)은 TV

15) 질적연구 역시 정형성을 지양하는 측면에 있으나 관찰대상과의 거리두기를 객관성 확보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 하위분야인 자기민속지학과 차이를 보인다.

제작자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 출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인종적 편견이 작동하는지를 고찰하였는데, 이처럼 자신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에서 성찰 가능한 것을 연구주제로 삼은 연구들도 자기민속지학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일례로 이은영(2015)은 운동권 학생으로서, 허준기(2016)는 장애인으로서, 김성경(2016)은 북한 출신자와 가깝게 지내는 연구자로서 갖는 고민을 토로하고 그것을 사회·문화적 의미로 확장하였다. 이밖에도 부모 양성을 쓰는 당사자로서의 경험(김미애, 2011), 해외봉사 등 특정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진옥, 2016; 김희정, 2021)처럼 특별한 경험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2) 자기민속지학 연구의 특징

자기민속지학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대체로 비주류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나(주형일, 2010),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부장제의 문제점(김미애, 2011) 등 사회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구도 있으나 어쨌든 그 출발은 '자신'이다. 물론 그 모체인 민속지학 자체가 피식민지 같은 소수자의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두는 데서 출발했지만, 자기민속지학은 그보다 더 소수일 수 없는 '자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식이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연관 짓고 확장함으로써 '일반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자기민속지학을 “개인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과 연결시키면서 의식의 다양한 층위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서전 방식의 글쓰기와 연구”로 정의하기도 한다(Ellis & Bochner, 2000; 주형일, 2007).

자서전 방식의 글쓰기다 보니 자기민속지학 연구의 결과물에는 일반적인 논문에선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나'가 등장한다. 1인칭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란 점에서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다소 민망한 것일 수 있으나 장은영(2017)은 '나'를 감추고 “객관주의와 실증주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통상적인 학술적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전개가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한층 수월하게 하고, 연구과정에 진정성을 확보하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쓰인 글이라야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영감을 줄 수 있다”며 대학 수업에서 자기민속지학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자기민속지학은 일견 자기중심적 글쓰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자를 배려한 관계 지향적 글쓰기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민속지학은 “저자와 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Berry, 2006; 오중서, 2011). 실제로 자기민속지학 연구자들은 논문 구성에 있어서도 딱딱하고 정형적인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 방법은 르포, 일기체, 여행기, 탐방기, 실험적인 글쓰기, 현장 보고서, 에세이, 문화비평, 시나리오, 소설, 다큐멘터리적인 글쓰기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다.

다만 이런 글쓰기가 논문심사 과정에서 “냉랭하거나 공격적인 평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 이기형(2013)은 ‘서론-이론적 배경-가설(연구주제) 제시와 검증-결론과 함의’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논문 형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탄력적이고 진전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글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관련 논문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서론에서 형식을 중요시하는 논문심사 관행으로 고뇌하고 좌절하는 연구자들의 사례를 영화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어 이후의 논의들을 궁금하게 만든다.

주형일(2013)도 논문이 언제부터가 “쓰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만 읽는 것”이 되었다며 독자를 고려해 “재미있게 읽히게 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초기 자기민속지학 연구자인 엘리스(Ellis)도 왜 논문은 톨스토이 소설처럼 감동적으로 써선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자기민속지학 연구를 발전시킨 바 있다(Ellis, 1997; 주형일, 2013). 평소 ‘왜 논문은 하나같이 딱딱할까? 재미있게 쓰면 안 될까?’란 고민을 해오던 나로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3) 보조적인 연구방법의 활용

그런데 자기민속지학 연구 결과물이 다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민속지학의 핵심 키워드는 ‘성찰’인데, 얼마나 제대로 자신을 성찰하느냐에 따라 ‘연구자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를 탐구한다’는 자기민속지학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을 쓸 수 있다(주형일, 2013).

그런데 이 성찰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다. 폴리(Foley, 2002)는 성찰을 “자기 자신을 ‘타자’로 바라보는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용기와 훈련이 필요하

다. 성찰을 통해 마주하게 될 진정한 ‘나’는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낯선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성찰한 결과를 “일상적이며 함축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 역시 과제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숙련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칫 그 결과물이 자기 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이야기로 빠지기 쉽다.

이런 이유로 자기민속지학이 독자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다른 연구방법이 추가돼 혼합연구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종종 목격되는데, 주형일(2007)은 이를 자기민속지학의 단점 때문이라기보다 그것 자체를 ‘자기민속지학의 확장된 적용’으로 보았다. 자기민속지학은 어찌 됐든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사회적 측면을 발견하고 문화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풍부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도 사실상 괜찮은 것이다.

실제로 주형일(2007) 자신도 그의 첫 자기민속지학 연구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에서 ‘기억의 불완전함과 불충분함’을 연구의 한계로 들며, 두 번째 자기민속지학 연구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적용>(2010)에선 다른 연구방법을 추가하였다. 우선 자신과 같은 지방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개방형)를 두 차례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절한(지방대생이라는 자의식이 강한) 연구참여자 1명을 선발해 네 차례에 걸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문화적 기억을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심층면담은 일방적인 질의응답이 아닌 상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종서(2011)도 “기억의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기억의 파편들에 관련성을 갖기 어렵다”며 신문기사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동원하였고, 김영찬(2011)은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연구가 자칫 자신을 나르시시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연구과정의 엄밀함과 정교함”을 확보하고자 8명을 대상으로 구술 면담을 병행하였다. 안 진(2015)과 이은영(2015) 역시 자기민속지학 연구방법에 심층인터뷰를 가미하였는데 안 진은 그 이유를 “나와 비슷한 제작 경력과 경험을 공유한 동료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의 경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이끌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그는 지상파 PD로 심층 인터뷰 대상은 2명의 방송작가와 2명의 방송PD이다. 이은영은 심층인터뷰 이유를 별도로 기술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자기민속지학의 내용과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로 읽힌다. 채과 동료들(Chang, Ngunjiri & Hernandez, 2013; 안 진, 2015)은 자기민속지학에 일반적인 질적연구방식을 혼합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혼자서가 아닌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기민속지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를 ‘공동의 자기민속지학(collaborative auto-ethnography)’이라고 하는데 채 등은 그 장점으로 “한 연구자의 이야기가 다른 연구자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다른 연구자의 면밀한 질문이 또 다른 연구자의 가설을 뒤흔들고, 한 연구자의 행동이 다른 연구자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선 위에서 언급된 보조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나와 같은 경험, 즉 PD저널리즘을 구현하고자 유튜브를 이용해 본 지역방송PD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PD들을 대상으로 나의 경험에 대한 견해를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피상적이고 개념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연구대상을 ‘나’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데¹⁶⁾ 이때 ‘나’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이용과 충족’ 연구모형을 구성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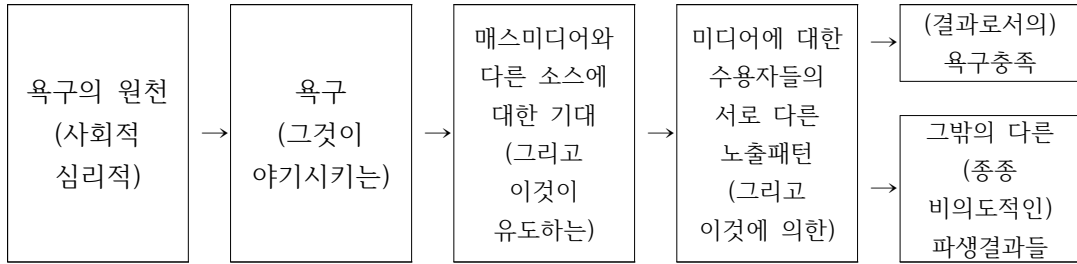
1. ‘이용과 충족’ 연구모형과 자기민속지학의 접목

카츠 등(Katz, Blumler & Gurevitch, 1974)은 ‘이용과 충족’ 이론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과정을 ① 인간 욕구의 사회적 및 심리적 원천, ② 그 욕구들 자체, ③ 이들 욕구가 야기하는 기대, ④ 그 기대의 대상이 되는 매스미디어나 다른 소스들, ⑤ 매스미디어나 다른 소스들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유도하게 되는 수용자

16) 사실 이것이 자기민속지학 본연의 연구방법이다.

들의 미디어에 대한 서로 다른 노출패턴, ⑥ 그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욕구충족, ⑦ 그 밖의 대체로 비의도적인 다른 파생결과들로 구분했다(차배근, 1986). 이를 훗날 맥퀘일 등(McQuail & Windahl, 1981))이 연구모형으로 만들어 제시했는데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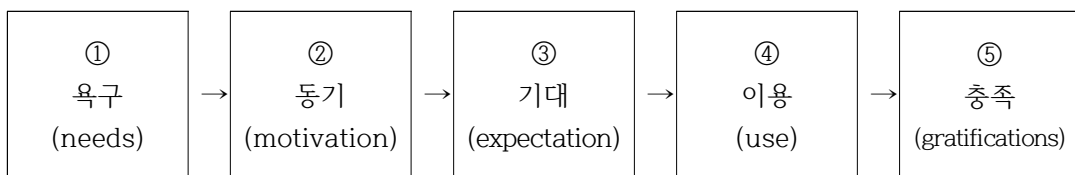
표 1. '이용과 충족' 연구모형



※출처: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차배근, 1986)

위 연구모형에 따르면 미디어를 이용하는 배경에는 어떠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사회·심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선택한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한 욕구가 충족되거나 혹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미디어 이용행위에 영향을 준다. 본고에선 이러한 단계적 구분에 맞추어 연구자의 유튜브 이용 경험을 자기민속지학적으로 분석/기술할 것인데, 그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리 혹은 단순화 작업이 필요해보인다.

표 2. '이용과 충족' 단순화 모형



앞서 서론에서 나의 유튜브 이용 '동기'를 'PD저널리즘의 구현'이라고 밝혔는데 원래 연구모형에는 '동기'가 없다. 대신 '욕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동기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직접적 요인을, 욕구는 그러한 동기를 추

동한 내적 상태를 가리키므로(욕구가 동기를 낳고, 동기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욕구’는 ‘동기’로, ‘욕구의 원천’은 ‘욕구’로 대체하였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서 ‘욕구’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순 이용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유튜브 이용행위를 보다 잘 반영하는 용어로 보인다.

앞서 ‘동기’가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단계인 ‘매스 미디어와 다른 소스에 대한 기대’는 인식적 차원인 동시에 행동적 차원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어떤 수용자가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TV에서 A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자 할 경우 ‘기대’는 해당 프로그램이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식)과 어느 채널에서 하는지 찾아보는 것(행동)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 단계를 ‘행동(activity)’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Lin, 1999; 이은선·김중인·김미경, 2020), 본고에서도 유튜브를 선택한 기대 요인과 아울러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이용 전) 행위까지 이 단계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행동’이란 용어는 ‘이용’과 혼동되는 문제가 있어 ‘기대’로 하였다. 네 번째 단계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들의 서로 다른 노출패턴’은 다소 장황하고 복잡한 관계로 ‘이용’으로 함축하였다. ‘충족’은 당초 ‘이용’ 결과로서의 충족과 의도치 않은 파생결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단순화 모형에선 이 두 가지를 통합하였다. 의도치 않은 파생결과 역시 해당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충족’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단순화 모형과 관련, 각 단계에 대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유발된 욕구 충족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고 효과를 얻는다’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있고,¹⁷⁾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일목요연해 글쓰기의 틀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이후 연구결과에선 나의 유튜브 경험을 이 단순화 모형에 적용해 자기민속지학으로 분석/기술할 것이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이 본고의 연구문제이다.

17) 카츠 등(Katz et al.)의 연구모형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서로 조금씩 상이한 해석과 변형된 모형을 제시하는데 용어선택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욕구 : 동기를 추동한 사회·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동기 : 나는 왜 유튜브를 하였는가?

연구문제 3. 기대 : 유튜브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하였는가?

연구문제 4. 이용 :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였는가?

연구문제 5. 충족 : 이번 경험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었는가?

2. 연구문제별 주요 기술내용

기술 순서를 ‘욕구’와 ‘동기’를 바꿔 [동기-욕구-기대-이용-충족] 순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동기를 중심으로 그것이 발생한 원인을 고찰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과 결과와 만족감 순서로 써나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이미 동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위 연구문제 순서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로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욕구 : 동기를 추동한 사회·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

욕구는 흔히 현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로 생기는 심리적 긴장상태로 이해된다. 이를 본 연구에 대입하면 PD저널리즘 구현이라는 동기를 추동한 욕구는 지역방송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나름대로 정립된 기준과 그에 못미치는 현실과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격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격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성원으로서의 심리상태를 기술한다.

2) 동기 : 나는 왜 유튜브를 하였는가?

앞서 1단계가 ‘욕구’이지만 욕구 그 자체보다 그것을 낳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주목하기로 한 것처럼, 2단계 역시 ‘동기’ 그 자체보다 ‘동기’를 유발한 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유튜브를 이용하게 된 동기는 PD저널리즘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동기가 새삼 생겨났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3) 기대 : 유튜브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하였는가?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정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켜줄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 PD저널리즘 구현이라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단으로 왜 유튜브를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었는지(인식적 차원), 그리고 그것이 준비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행위적 차원) 살펴본다.

4) 이용 :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였는가?

PD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대안매체로 선택된 유튜브로 실제 어떤 콘텐츠들을 어떻게 제작하고 업로드하였는지 설명한다. 특히 이용 과정과 결과물로서의 콘텐츠가 기존 지역방송 내에서 생산해왔던 그것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어떤 비교점이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라는 매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특별한 이용행위가 있었는지(있었다면 무엇인지) 설명한다.

5) 충족 : 이번 경험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었는가?

‘기대불일치이론’에 따르면 만족, 혹은 불만족은 기대와 성과간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 유튜브를 직접 이용해 본 결과 당초 가졌던 기대에 비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대보다 성과가 못 미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한다. 특히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PD저널리즘의 특징으로 ‘심층성’을 들었는데 이용의 결과물에 그것이 나타났는지 알아본다.

IV. 연구결과

1. 욕구 : 동기를 추동한 사회·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

PD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이다. 당시 진로를 고민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떠올렸는데 바로 TV 시청이었다. 나만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통계청의 1993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여가 수단 중 수면·가사·잡일(45.4%)을 제외하고 1위가 TV 시청(24.4%)이며, 평균 시청시간도 주당 17.5시간으로 나타났다. 매일 2시간 30분씩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늘상 TV를 틀어놓고 공부를 할 정도로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장차 직업으로 시청 대상이거니만 했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해보자는 데 생각이 이르렀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지망하였다.

대학교 2학년 때인 1995년은 방송사(史)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난시청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케이블 TV가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24개 채널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당시 지상파 5개 채널(KBS 1/2, MBC, EBS, SBS)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실로 획기적인 변화였다. 졸업 후 일자리 걱정은 없겠다는 분위기가 학과 내 만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에 더해 5월에는 1차 지역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개국하였고, 8월 5일에는 한국 최초의 방송통신 복합위성인 무궁화호 1호가 발사되었다. 이른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시작이었다.

졸업과 전역 후 케이블TV와 라디오 방송을 잠깐씩 경험하고 2003년 5월 지역 방송에 입사하였다. 내가 입사한 지역방송은 제주민방이다. 입사 초기엔 주로 지역소식을 전하는 가벼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입사 3년 만인 2006년 9월부터 시사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 위로 고참들이 여럿 있었지만 ‘시사’ 장르에 적합할 거란 데스크의 판단 덕분이었다. 실제로 시사 프로그램은 적성에 잘 맞았다. 밤낮 휴일 없는 취재와 원고 작성이 고되기도 하였지만 지역의 이슈를 다루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즐거웠고, 민원성 제보를 해결하는 데서 보람도 느꼈다. 지역에선 주민들이 기자만 대단하게 여기고 PD는 ‘그게 뭐하는 사람이예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졌다. PD들이 일반 프로그램에선 주로 카메라 뒤에 위치하지만 시사 프로그램에선 카메라 전면에서 나와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12월, 209회를 마지막으로 해당 시사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 방송사의 수익악화 탓이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그 시점이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난시청 해소 대책으로 생겨난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위성방송에 이어 IPTV까지 가세하면서 지상파 방송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여러 매체가 나눠먹기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일자리가 많아져 좋겠다고 생각했던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가 결국은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의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4조 1,000억 원에서 4년 후인 2019년 3조 5,200억 원으로 약 14.1%, 방송광고매출은 같은 기간 1조 9,1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42.4% 감소했다. 2015년 55.1%에서 2019년 36.7%로 급감한 광고매출 비중 변화를 통해서도 지상파 방송의 위기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20).

광고 수익이 줄어들면서 지역방송들은 협찬수익에 기댈 수밖에 없다. 많은 지역방송 PD들이 시사 프로그램은커녕 ‘지역성’이라는 지역방송의 존재이유와도 거리가 먼 프로그램들을 협찬수익 증대라는 미명 아래 제작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기업이나 지자체로부터 협찬을 받다보면 프로그램의 순수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제작지원한 곳을 홍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제작부서에 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데 이미 많은 동료 선배 PD들이 사업부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탓이다.

이런 탓에 ‘나도 언론인인가?’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많다. 언론인은 통상 저널리즘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소속된 직원을 두루 일컫는데 언제부터인가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 서류 등의 직업란에 당당히 ‘언론인’으로 기재했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민망하다. PD라면 어쩌해야 한다는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현재 처한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큰 탓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이나 ‘이달의 PD상’ 같은 것도 받고 싶은데 관련 공모전에 언제 응모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출품할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시사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데, 가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나 MBC <PD수첩>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 자괴감이 느껴진다.

카츠 등(Katz et al.)은 욕구를 ① 이해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인지적 욕구, ② 미적·감정적 경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서적 욕구, ③ 자신감이나 안정감을 강화

하고 싶은 통합적 욕구, ④ 친목을 추구하는 유대강화 욕구, ⑤ 도피 및 긴장해소 욕구 이상 5가지로 보았는데(Katz et al, 1973), 나의 경우 ① 인지적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PD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나 자신을 PD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주위로부터도 훌륭한 PD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지만 그러한 욕구가 지역방송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억눌려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 동기 : 나는 왜 유튜브를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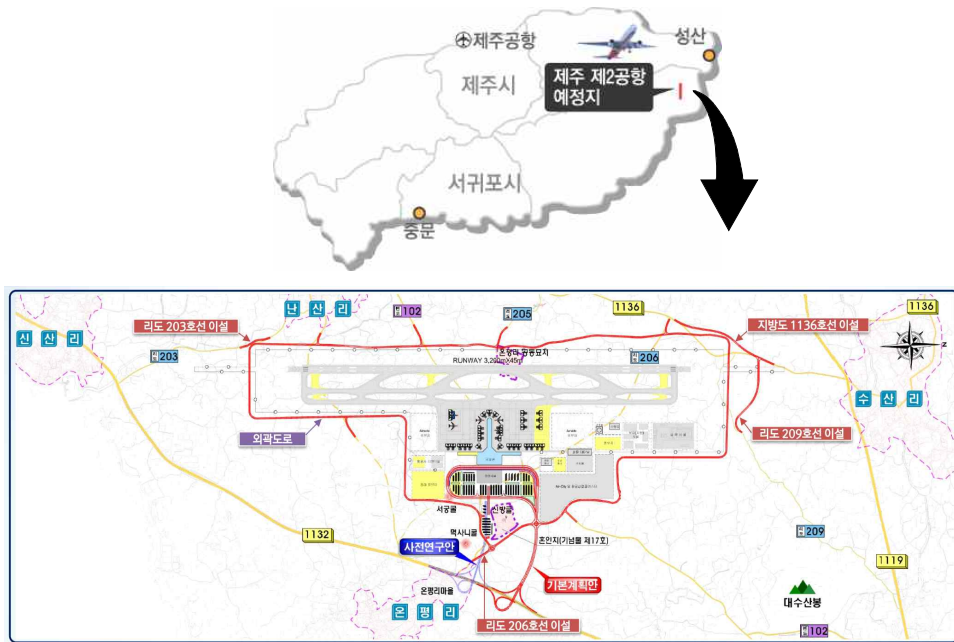
언론인으로서 PD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자각되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반대 주민들과의 만남이 그것이다.¹⁸⁾ 물론 그 이전에도 PD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고민이 끝이었다. 벗어나고 싶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현실이라 여겼던 탓이다. 하지만 제2공항 반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수산리·난산리·신산리 일대 약 545만㎡ 부지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 1천억여 원을 들여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제주 북부지역에 제주국제공항이 있지만 정부(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수용력 한계에 따른 ‘안전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¹⁹⁾ 제주도내 찬성론자들도 관광객 증가 등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2공항 예정지 반대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 될지도 모를 중차대한 일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제2공항 부지가 미리 알려질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 설명절차를 생략했고, 결국 예정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 당일에서야 해당 사실을 그것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8) 신산리(2020. 10. 8)와 난산리(10. 23),수산리(11. 6) 주민들을 각각 5~6명씩 만나보았다. 온평리 방문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찬반 입장이 팽팽한 마을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19)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항공기가 2분에 한 대 꼴로 이착륙하는 관계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림 2.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조감도



※출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나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동안 관련 보도를 꾸준히 챙겨보았고, 그래서 주요 쟁점과 찬반 양측의 주장 정도는 나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해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만난 주민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반대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오랜 세월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나는 생산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주민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항 건설 통보를 받았을 때 느꼈을 분노와 허망함을 전혀 몰랐다.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계속해서 소음피해를 견디며 살아야 할지 하는 고민과 한숨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동안 뉴스를 통해 반대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내놓는 반대이유만 접한 나머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실체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금요일 낮에 1시간씩 피켓시위, 남자 농민회는 일주일 3회 월수금. 농번기에 힘들어도

나와서 하죠. 이런 건 언론에 안 나와요.” (정OO, 신산리 주민)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예(아닌가요). 깨끗한 곳에서 살아갈 권리, 농사지을 권리, 다 남이 가져간다 생각하니 우리는 그럼 다 가져가면 쳐다만 봐야 하는 사람인가? 아 그럼 이권 아니다 싶어서...” (강OO, 신산리 주민)

“제2공항으로 인해 이익 보는 사람 말고 아픔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김OO, 신산리 주민)

제2공항 반대 이유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은 주로 환경수용력 초과와 입지선정의 부적절성 문제다. 제주도가 지금도 쓰레기와 하수 처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항을 지어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며 설령 안전문제가 있다면 기존 공항을 확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전조사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는냐고 했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땅은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줄곧 도시에서만 살아서인지 땅은 그저 집을 짓는 토대 정도로 생각하던 나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유였다. 보상을 받더라도 노인들은 어디 가서 살 것이며 대대로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도 그랬다. 이러한 반대이유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좀처럼 접할 수 없고, 심지어 시민단체나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잘 얘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경제발전 등을 위해 제주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그들은 대체로 오랜 세월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나는 생산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혹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마을에 공항을 짓는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혹은 소유피해를 계속해서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공감능력을 갖춘 인간이라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처지가 되어 그들이 느낄 분노, 허망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어야 한다. 아니, 위로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그들이 떠안아야 될 고통과 희생에 대해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공항을 반대하는데 차타고 가면 10분 거리인 사람들은 그 마음은 조금도 보지 않고 자기네 이익 때문에 왜 공항 안 생기나 하면서 현수막 걸고 TV 나오고 하는 거 보면 화나죠.” (강OO, 신산리 주민)

“피켓 시위를 고성사거리에서 하는데 검정색 그랜저 타고 가는 여자 세 명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픈 마음으로 피켓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OO, 신산리 주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양상은 제2공항 건설의 경우처럼 국책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새만금 간척사업(1991) 당시에도 그랬고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2005), 평택 미군기지 이전(2006)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제주지역 사례로는 중문관광단지 개발(1978),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2007)을 들 수 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이것이지 아마 열거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함한회는 이렇게 짚어낸 바 있다.

“정부에서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국가적인 명분과 더 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침묵하도록 요구한다. 그리하여 고통은 희생정신과 인내로 변환되어서 범국가적인 도덕적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국책사업의 경우 피해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대의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함한회, 2002). 이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니게 된다. 잘못은 오히려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생사를 건 처절한 반대운동을 ‘넘비’라

짜잡아 비판하고 짜증 섞인 야유를 보내기까지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이 같은 비뚤어진 공감능력이 함한회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나는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책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의 주요 기능은 의제설정이다. 언론이 비중있게, 자주 다루는 것을 시청자와 독자들은 중요하게 여긴다(이서현·송철민·이승환·최낙진, 2021). 그동안 언론이 제2공항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나, 대체로 전문가나 반대단체 대표 정도를 취재원 삼아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정도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절박한 사정과 처지 역시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이다. 유튜브에 제2공항 반대주민들의 인터뷰를 담아냄으로써 그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른바 유튜브를 통한 PD저널리즘의 구현, 이것이 나의 이용동기이다.

3. 기대 : 유튜브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하였는가?

PD저널리즘 실현 수단으로 유튜브를 선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인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여러 소스들과 경쟁”하는데 PD저널리즘 실현이라는 동기 충족수단으로 경쟁상대가 없는 것이다. 아프리카TV나 틱톡 같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없지 않으나 이런 매체들은 개인적으로 오락이나 시간때우기 수단일 뿐, 저널리즘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유튜브의 경우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편향성 같은 해당 미디어에 덧씌어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것이 실제 선택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다. 그만큼 유튜브의 장점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나만 제대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인식하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데스크의 통제나 검열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맘껏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 프로그램 제작 당시 경험을 돌아보면, 민감한 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보다 데스크로부터 하달되는, 소

위 방송사의 ‘스탠스’를 옆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적이 많다. 하지만 유튜브는 다르다. 내가 데스크이고,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방송심의기구의 제재를 받을 필요도 없어서 표현의 수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표현의 수위란 중립성에 대한 것이다. 최근 방송사별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경향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은 공공재란 인식 아래 균형성과 객관성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제2공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실으려면 그에 반하는 찬성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 오로지 나의 주장과 생각만 말하면 된다.

1인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도 유튜브의 장점이다. 기존 방송에서는 촬영을 나갈 때 기본 5명에(PD, 카메라 감독, 카메라 보조, 작가, 리포터), 후반작업에도 여러 명(자막담당, 음향감독, 기술감독 등)이 참여하고 송출인력(MD)도 있어야 하지만 유튜브는 다르다. 혼자서 촬영, 편집, 송출(업로드)까지 가능하다. 물론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 못잖은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작된 것들이 적지 않다. ‘유튜브=1인방송’이라는 등식은 유튜브 등장 초기에나 통하던 것으로 요즘 소위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별도의 제작인력을 두고 활동한다. 하지만 ‘혼자서도 방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촬영장비 역시 유튜브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발달해 전문가 카메라 못잖은 화질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나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는데, 삼각대와 오즈모, 외장 마이크 등만 별도로 구매하였다. 비용은 347,950원이 발생했다.

표 3. 유튜브 이용 위한 구매 장비

	삼각대	오즈모	마이크	클램프	마이크어댑터
장비					
용도	인터뷰	흔들림 방지	고음질 확보	폰 거치	마이크 연결
가격(W)	71,000	179,000	73,150	16,500	8,300

장비를 갖추고 나니 벌써 유튜버가 된 기분이 들었다. 어떤 인기 유튜버들은 1년에 수억 원을 번다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도 곧 닥치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도 해보았다. 만약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터였다. 내가 그렇게 멋있다고 여기던,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지만 처음 가졌던 PD로서의 자긍심을 지역방송 안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유튜브 수익이 연봉보다 많아진다면 PD로서 활동 공간이 굳이 방송사가 아니어도, 유튜브 공간이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혼자서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동안 정형화 된 방송제작 시스템에 길들여진 나로서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방송은 종합예술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발생해야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고 그래야 조회수도 올라가는 것일 텐데 혼자서는 그것을 해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변현진(2018)의 연구결과에서 위안을 얻게 되는데, 그는 200여 개의 유튜브 인기채널 분석을 통해 그 공통점으로 “① 독창적인 기획, ② 간결하고 잘 전달되는 내용 편집, ③ 지속적인 운영 관리, ④ 소통을 통한 시청자와의 신뢰” 이상 네 가지를 꼽았다. 콘텐츠의 질은 조회수와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방안을 정해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독창적인 기획’과 관련,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반대주민들을 인터뷰하되 그 대상은 평범한 일반인들로 하기로 하였다. TV에 종종 모습을 보이는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같은 이른바 마을 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니라 인터뷰 경험이 전무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흥미나 진정성 면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제인 ‘간결하고 잘 전달되는 내용 편집’은 인터뷰 내용을 2~3분 분량으로 가급적 짧게 편집하고, 인터뷰 내용에는 자막을 달아 이해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콘텐츠를 시간 있을 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월요일 업로드 하고, 댓글은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답글도 달아 ‘소통을 통한 시청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회사 업무시간에는 절대 유튜브 관련 작업을 하지 않고 회사 장비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가지다. 만약 그랬

다가 그런 사실이 발각이라도 됐다가는 어떤 문책이 뒤따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숨겨야 했다. 아무리 주말 등 일과시간 외에만 내 장비를 가지고 활동한다지만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일, 특히 유사 방송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게 분명했다. 더구나 언론인은 법적으로 겸업이 금지돼있는데, 유튜브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정 이슈에 대해 편향적인, 그것도 회사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채널 정보나 콘텐츠에 나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목소리 역시 음성변조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은밀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심정은 다소 복잡했다. 지역방송 PD의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나름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미디어에 대한 선택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는데 유튜브의 경우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 이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기대 또한 막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4. 이용 :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였는가?

기획단계를 마치고 곧바로 제작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섭외가 관건이었다. 기존 언론이 소홀히 여기는 당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유튜브로나마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여기저기 설득하고 다녔는데 섭외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유튜브로만 나간다고 하면 일반 방송에 비해 덜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너도나도 인터뷰하겠다고 줄을 설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유튜브 방송도 어쨌거나 방송인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면서도 쑥스러워서, 혹은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마을 이장이나 청년회장 같은 언변이 좋은 이들을 추천받았는데 이런 경우 평범한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는, 유튜브 방송의 취지를 공들여 설명하였다. 결국 11개의 콘텐츠를 겨우

제작할 수 있었는데 이중에서도 인터뷰 경험이 거의 없는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기획의도에 부합한 것은 6개이다.

표 4. 유튜브 콘텐츠 리스트

N0	거주지	이름	나이	직업	업로드일시	비고
1	제주시	홍○○	·	환경단체	2020.10.27	환경단체 대표
2	난산리	김태호	63	농업	2020.11.04	실명 노출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
3	난산리	김영선	74	주부	2020.11.12	
4	수산1리	김기립	80	공공근로	2020.11.18	
		강자욱	83	공공근로		
5	수산1리	노시원	·	이주6년차	2020.11.25	
6	수산1리	김문진	55	농업	2020.12.02	
7	수산1리	오은주	·	광고업	2020.12.07	
8	성산리	김○○	·	작가	2021.02.08	사업예정지 외 거주
9	신산리	강○○	·	이장	2021.02.10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10	·	김○○	·	학생	2021.02.10	기자회견 촬영
11	수산1리	강○○	47	농업	2021.02.16	청년회장

▶ 난산리 김태호



- 인터뷰 일시: 2020. 10. 30
- 장소: 자택 인근 밭
- 업로드 일시: 2020. 11. 4
- 조회수: 1,270회²⁰⁾
- 좋아요: 26회
- 나빠요: 9회
- 댓글: 4건(긍정 2/부정 2)

※ https://www.youtube.com/watch?v=r_Diyn7kpe0

“저는 성산읍 난산리에 사는 김태호란 사람입니다. 원래 나이는 만으로 63세, 1956년생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첫째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고 보상받은 돈으로 어디 가서 땅을 그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돈 주고 사 봐야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안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전부 가꿔놓은 땅인데 그걸 뺏기고 다른 데 가서 대토를 해준다고 해도 농사가 안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일궈놓은 땅을 공항으로 들어가면서 다 뺏겨버리면 이건 너

20) 이하 2020년 12월 19일 기준

무 아쉽고 앞으로 우리가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토를 일궈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오늘 제가 처음 인터뷰를 합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공항 들어오는 거를 반대해서 잘 막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 이게 점점 공론화돼서 제주도 전체가 이게 꼭 공항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부터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유튜브 내용)

제2공항 예정지 반대주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방송 첫 번째 주인공은 난산리에 사는 김태호 씨다. 그를 처음 만난 건 대학원 강의의 일환이자 사전조사차 난산리 주민 5~6명을 그룹인터뷰하는 자리에서였다. 앞서 진행된 신산리 주민 그룹인터뷰에서 한 명도 섭외를 하지 못한 터라 개인적으로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했다. 뒤이어 식사 자리가 마련됐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들과 라포를 형성해갔고 결국 김태호 씨의 승낙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유튜브 방송을 위한 인터뷰는 그로부터 1주일 뒤 김 씨의 자택과 맞닿은 콜라비 밭에서 진행되었다. 기존 방송 인터뷰라면 카메라 감독이 세팅을 하는 동안 PD는 인터뷰이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는데 혼자서 이 모든 걸 하려니 여간 힘들게 아니었다. 1인 방송을 하는 이들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고랑 사이에 어렵게 세팅을 마치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농작물 피해를 제일 먼저 꼽았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난산리는 활주로 옆에 붙어있어서 소음이 말도 못하게 심하고, 거기서 나오는 중금속, 먼지 이런 게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게 제일 속상합니다.”

“과실수나 새들이 오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는 소음피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김 씨는 그것 못잖게 중금속과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감귤밭도 하나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항이 들어설 경우 조류 충돌 문제로 감귤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편집본에는 넣지 않았다. 하지만 농사에 대한, 그리고 농지로서의

땅에 대한 애착은 분명하게 전해졌다.

“땅은 저한테는 제일 큰 자산이고 나 혼자서 뭐 할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큰 재산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그나마 큰 앞으로 후세들한테 물려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콜라비밭 주위에는 돌담이 둘러쳐져 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을 일구는 과정에서 나온 돌들을 주위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했다. 흔히 제주의 돌담을 관광자원이나 미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 그 조성배경에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있다. 또 땅이 농작물을 키워내려면 비료와 퇴비를 충분히 공급해 기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농토’가 된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농사는 농작물을 키워내기 이전에 땅을 가꾸는 일이다. 그래서 농부에게 땅은 소중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제가 중간에 돌담 있던 거를 이제 전부 손으로 치우고 암반작업도 했어요. 제거작업. 그거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밭을 일구느라고. 암반 제거해서 처음 농사를 지은 건데 그나마 괜찮게 해줘가지고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제주시에서 약 30년 간 자영업에 종사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농촌은 아무래도 답답했을 것이다. 그러다 3년 전쯤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후계획이 제2공항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 농사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틈만 나면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이유이다.

“성산리에 제2공항이라는 게 들어온다니까 답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몸도 편안하게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마지막 휴식처로 해서 난산리로 들어왔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돌아가면서 시위도 하고 시내도 찾아가고 환경연대하고 연대하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난산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너무 많아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게 아쉬운 점이고 그렇습니다.”

▶ 난산리 김영선



- 인터뷰 일시: 2020. 10. 30
- 장소: 자택 거실
- 업로드 일시: 2020. 11. 12
- 조회수: 1,254회
- 좋아요: 19회
- 나빠요: 5회
- 댓글: 1건(공정 1/부정 0)

※ <https://www.youtube.com/watch?v=hGXCbpXDTZQ&t=34s>

“내 자식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와서 좀 쉬어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장만하고 했는데 공향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정말로... (공향 생기면) 직장 보장된다고 하는데 가서 할 일도 없고 한다고 해도 청소 정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농사도 (조류 문제로) 밀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람들 어디 가서 삽니까? 이 밭 팔아도 딴 데 가서 우리 밭 살 만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공향 한다고 해놓으니까 (주변) 밭값만 너무 올라서 딴 데 가서 (농사짓고) 살라고 해도 살지도 못하고 집 짓는다고 해도 외딴 데 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삽니까? 상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나 혼자만 아파트 속에 툇 가둬놓고 살 수밖에... 집도 시에 큰 아들은 안 샀어요. (나중에) 여기 산다고 해서... 우리도 할머니 101세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나도 안 팔고 우리 다 준 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아이들한테도 또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팔아먹으면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 막아지느냐 해도 자기네가 여기 와서 살지 않으니까 그 소리 하지 자기네 마당에 그거(공향) 하라고 해야 되지 우린 못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제 유튜브 내용)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난산리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는 앞서 김태호 씨 외에 김영선 씨도 있었다. 그녀의 고향은 남원으로 난산리에서 남쪽으로 20km쯤 떨어진, 밀감재배가 잘 되기로 유명한 부촌이다. 처녀 시절 세화리²¹⁾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난산리가 시집이 되었다. 난산리가 고향은 아니지만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어떤 주민들보다 제2공향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

21) 난산리에서 북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이다.

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제주에서 나고 자란 나조차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제주 방언이 심했다.

“독개 고는 채 푸는 채 차룽 구덕 그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와그녕 보라게 얘기 키우던 대구덕도 이수다게. 적차룽, 떡차룽, 다 얘기들 손지들 다 모아놔져이. 크걸랑 왕 보라이. 옛것을 잊지 못하게 모아놔신디 이제 그추룩 공항 들어오켄 허는디 어뎡헐거라. 갈디가 이수다. 경해노나네 아무리 공항이 온뎡허여도 나는 고만히 앓아그녕 지키쿠다.”

요약하면, 옛 물건들을 집에 소중히 보관해오고 있으며 그것들을 손자들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2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얘기다. 언론을 통해 접한 반대 이유는 주로 환경수용력이나 입지선정의 적절성 문제 정도였던 만큼 김영선 씨의 이야기는 무척이나 생소하게 다가왔다.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별도의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결국 그녀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²²⁾ 전형적인 제주 가옥 형태로 올레(큰 길에서 집까지의 좁은 골목)가 있고, 세거리(안거리, 밖거리, 목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안거리는 결혼한 자식 식구들이 거주하고 밖거리엔 부모님이 독립해 산다. 목거리는 창고로 쓰인다. 제주4.3 때 소실되었던 것을 남편이 고쳐 살아왔다고 한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전통적인 물건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앞서 사전조사 당시 들었던 바로 그것들이다. 제주식 그릇 창고인 ‘살레’, 오래된 쌀뒤주, 낡은 재봉틀도 눈에 띈다. 집 자체가 하나의 작은 민속박물관이다.

“들어오난(들어오니까) 좋지 았으파(았아요)? 우리 얘기들이영(얘기들하고) 불 찰락(차기) 합니다. 저 항아리 속에 불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담아져 이수다(있습니다). 이게 어서지지(없어지지) 말아야 얘기들이 경(커서) 와도 불 찰락(차기) 한 거 기억할 거 아니 파(아닙니까). 할망이영(할머니하고). 경해부난게(그러니까).”

김영선 씨에게는 자녀가 셋 있는데 주말마다 손자들과 함께 놀러온다고 했다. 집 마당에서 손자들과 공을 차고, 옛 것을 보여주며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22) 위 유튜브 방송에 그녀의 집이 나온다.

김 씨의 즐거움이다.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고, 이를 손 자들도 몸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2공항은 그녀에게 전통을 파괴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옛것이 점점 사라져 가면 우리 것이 없어질 거 같애(같아요). 하니(그러니) 모아두자. 게 같은 것도 물려받아서 갖고 있는데 옛것 없이 공항 들어와서 좋다좋다 하지만 우리에게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항이 건설되더라도 김 씨의 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음피해로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럴 경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고령의 나이에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이다.

“어디 강(가서) 누구영(누구하고) 말고르멍(얘기하면서) 살거짜(삽니까). 상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어서마씨(없습니다). 이녁(나) 혼자만 아파트에 툇 가두영(가둬놓고) 살배끼(살수밖에). 여기 옆에도 할망(할머니) 얘기 키우당(키우다가) 얘기 다 크난(크니까) 할망이(할머니가) 쓸모없는 사람 되어마썸(됩니다). 여기 왔당가당(왔다가다) 해신디(했는데) 얘기 타 키워블면(키워버리면) 우리 쓰맹이(쓸모) 어서(없어) 그 말 고릅디다(얘기합니다).”

▶ 수산리 김기립·강자욱



- 인터뷰 일시: 2020. 11. 11
- 장소: 수산1리 경로당 앞
- 업로드 일시: 2020. 11. 18
- 조회수: 1,231회
- 좋아요: 26회
- 나빠요: 11회
- 댓글: 1건(긍정 0/부정 1)

※ https://www.youtube.com/watch?v=_hEx49cofZw&t=59s

“여기 만약에 제2공항이 된다면 우린 어디로 떠나야 될 거 아니요. 이거 너무 우리에게 너무 큰 타격입니다 이거.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건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 사는 이런 집 앞을 헤치면서 꼭 이리로 나가야 된다는 건 도저히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공항 들어서면 땅값도 오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지?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땅값 말을 우리 무식한 사람 한소리 하겠어요.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세금만 많이 내지 돌아오는 건 없이 공시지가 올랐다고 우리가 거기서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천상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그리고 지금 공항 지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도에서는 (관광)수입이 어떻고 어떻고 그런 거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알기로는 쓰레기를 지금도 충분히 처리를 못하는데 여기 해놓으면 이 근방에 관광객들 와서 먹다 가지고 갑니까? 다 버리고 가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했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머리도 좋고 모든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면이 상당히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감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원희룡 지사가 이걸 꼭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튜브 내용)

김기립, 강자욱 두 할아버지는 사전 섭외 없이 즉석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원래 수산1리 마을회관에서 만나기로 한 분이 핑크를 낸 것이다. 취소된 일정을 뒤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을 경로당을 찾았다. 이곳에 마침 노인 일자리 사업²³⁾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정보를 마을회관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로당 주위에 노인 몇 분이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에는 김기립, 강자욱 두 할아버지도 있었다.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아이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했다. 방문목적은 설명 드리고 인터뷰 승낙을 얻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마을 동향을 파악하러 온 공무원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공항이 바로 이 앞이에요. 여기서 비행기가 뜬다고. 큰길 건너편에서.” (김기립)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거 바다로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로?) 항로가.” (강자욱)

이들이 얘기하는 제2공항 반대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면 될 것을 왜 새로운 공항을, 그것도 해안가가 아닌

23) 노인들의 근로욕구 충족으로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을 도모하는 사업

내륙 마을을 관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안을 제시했던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다.²⁴⁾ 그런데도 정부가 굳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려는 이유를 나름 이해해보려고 애쓴다. 결국 군사공항이 아닐까 의심해보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국가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전투비행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거. 그것도 이야기를 앓고 마스크 같은 데서 안 탔으면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권위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했는데 왜 그거는 전혀 이야기도 없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김기립)

이처럼 제2공항은 이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다. 확실히 아는 것은 공항 건설로 소음피해를 견디며 살거나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대책 사업으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되어 온 걸 익히 보았지만 막상 자신들의 일로 닥치니 당혹스럽고 막막하다. 노구를 이끌고 반대집회에도 나가보지만 이렇다고 바뀔까 하는 무력감도 드는 게 사실이다.

“밀어붙인다면 우리로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국토부에서 야 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그래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무얼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누워서 공사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립)

“제2공항이 지금대로 이어나간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여기 살 수 없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냐면 우리가 떠나서 살 곳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삽니까 이제.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많은 이곳 주민들이 손해보고 억울하게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자욱)

24) 제2공항은 연간 이용객 4,500만 명(2035년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것인데, ADPi는 현 제주국제공항 항공시스템 개선과 보조활주로 활용으로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무시하고 건설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 수산리 노시원



- 인터뷰 일시: 2020. 11. 19
- 장소: 수산초등학교 근처 카페
- 업로드 일시: 2020. 11. 25
- 조회수: 1,266회
- 좋아요: 19회
- 나빠요: 8회
- 댓글: 4건(공정 0/부정 4)

※ <https://www.youtube.com/watch?v=WPSceNinAqU&t=48s>

“저는 2015년도에 오고 가족들은 2016년도에 왔어요. 육지에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거든요. 저는 광고 쪽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를 우연찮게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학교 수학여행 오고 처음 제주도를 왔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공항에 대한 생각은 전 당연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발하는 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자연이 망가지면 제주도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나마 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유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건 당연하죠. 이 마을이 이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항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하고 헤어질 것 같은 슬픔도 문득문득 몰려와요 요즘은. 진짜 정이 되게 많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더 같이 마을 분들과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있으면 최대한 참여를 해서 같이 공항 반대에 대한 나의 조그만 힘을 보태고 싶은 그런 게 있죠. (땅값은 올랐나요?) 네 올랐어요 많이. 그러니까 공항 발표 나고서 3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저는 여기 살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부담만 더 커지는 거지. (땅값) 올라가는 게 여기 사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걸요? 오히려 세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지 내 땅값이 올라가서 좋다 나는 여기를 팔고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거냐 이 땅값이 오르는 게 좋아하는 주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다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 속상하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들이 제주도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유

튜브 내용)

반대집회만큼 반대주민들을 만나기 좋은 장소는 없다. 결의대회나 거리선전전이 있으면 시간을 내 찾아가곤 했는데 그러다 노시원 씨를 만났다. 그는 흔히 말하는 이주민이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6년 전, 식구들과 함께 수산1리에 정착했다고 했다. 여생을 조용하게 살고 싶어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 이듬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당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고향도 아닌 곳에서,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은 솔직히 좀 의아하게 느껴졌다. ‘이주민이 저렇게까지...’ 싶은 것이다. 며칠 후 자택 근처 카페에서 따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떻게 보면, 소음피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떠나면 되죠.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드리는 이런 말을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최대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여기 속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 어떤 그런 지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 온 거거든요? 쉽게 온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온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또다시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더 같이 마을분들하고 어떤 모임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를 최대한 해서 공항 반대에 대한 나의 조그만 힘을 보태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이주민은 ‘이방인’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와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이다. 다른 곳에서 왔으니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인 사람으로 여겨진다.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 토박이인 나에게도 노시원 씨는 처음엔 그런 존재였다. 더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값도 공항 발표 후 3배나 올랐다고 하니 속으론 웃고 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마을과 이웃들에 대한 그의 진심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보상 잘 받고 되팔아서 딱 데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마음고생 안 하죠. 저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마음고생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지켜져야 보존돼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정이 되게 많은 마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상상만 해도 너무 슬

피요.”

노시원 씨가 제2의 삶을 제주에서 시작하기로 한 이유는 제주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우연한 기회에 제주에 왔다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중에는 제주가 아름다운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저 남들이 그렇다니까 피상적으로 알 뿐이다. 그래서 자꾸 손을 댈다.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인데도 아름다움을 지워간다. 심지어 환경이 밥 먹여주냐는 말을 서슴치 않으며 더 많은 관광객을 들이는 데 골몰한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제2공항이 있으며 이는 제주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노 씨는 말한다.

“제주의 자연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고 개발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있는 사실, 또 바다에 오폐수가 흘러들어가서 바다에 그 해녀 삼촌들이 물질하면서 똥냄새 난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실감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니까 제주도가 사실은 위대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자연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려는 노력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자연이 무너지면 제주도도 없다고 생각해요”

▶ 수산리 김문진



- 인터뷰 일시: 2020. 11. 19
- 장소: 자택 거실
- 업로드 일시: 2020. 12. 2
- 조회수: 1,192회
- 좋아요: 20회
- 나빠요: 10회
- 댓글: 6건(공정 2/부정 4)

※ <https://www.youtube.com/watch?v=EobL7RNqGUc&t=38s>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녔고 그 후에 육지 가서 사업도 하고 기계회사도 다니고 그러다가 잘 안 되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래도 의지할 데라고 고향이라도 있으니까 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 여기는 절대 들어서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같이 반대운동도 다니면서 진짜 들어서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물도 그렇고 지금 뭐 제주가 자연적으로 숨골(빗물이 스며드는 구멍)에 의해가지고 지하수니 뭐니 다 되는데 그런 걸 다 막고 다들 얘기하는 게 제주다움이 진짜 없어진다 제주도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환경운동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길을 잘 만들어놓고 육지에서 손님을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대접할 게 없어 이게 왜냐하면 제주다움이 없어지면 우리가 대접할 게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오겠습니까? 그럼 (제2공항) 이게 또 애물단지가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째. (그럼 제2공항 발표 당시(2015.11.10)에는 서울에서 소식을 들었겠네요?) 네.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제주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동네 쪽이네? 그럼 이게 좋아지는 건가 나빠지는 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죠. 근데 내려와서 동생이랑 얘기하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내가 느껴보고 그러니까 내가 살 데가 여기인데 이제 살 곳이 못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도지사라면 진짜 도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소통도 하고 읽어주고 그걸 반영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해를 하고 공항 찬반이니 여론도 형성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무모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진짜로...” (실제 유튜브 내용)

김문진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졸업 서울에서 생활하다 3년 전에 귀향했다. 허리를 다쳐 힘든 일은 못하고, 대신 익혀둔 드론방제기술을 이용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생계도 꾸려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인생2막이 제2공항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고 그는 걱정했다.

“(공항이 들어서면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나?) 엄청 생기죠 일단 다 여기서 동생이랑 하는 밭이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될 수 있죠. (농사를 못 지어요?) 일단은 다 들어가진 않지만 시끄럽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이런 데 주변에 보면 논들 있지만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곤 물류창고를 짓는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정착해서 못 살면 땅도 같이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제2공항은 한때 제주지역 숙원사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가 신공항개발사업을 공약하였고, 이후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운동이 범도민적으로 일어났다.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도 2009년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엔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다. 그러다 2013년 입도 관광객 수가 꿈으로만 여겨지던 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제주공항의 수용력 확대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결국 2015년 11월 정부는 지금의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발표 당시 김 씨는 서울에서 소식을 접했는데 처음에는 제주 왕래가 편해질 거란 기대도 하였으나 동생의 영향으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동생은 이 마을 이장이다.

“육지 있을 때 공항 들어선다는 얘기 듣고 약간 어 뭘 일이지? 의아했어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여긴 절대 들어서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고 (동생이랑) 같이 반대운동도 다니면서 진짜 들어서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이 잘 살아야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런 건데 도민이 없는... 누구를 위한 공항인지를 헛갈리게 하고 있어요.”

제2공항의 목표인 공항 수용력 확대는 한 마디로 관광객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으로서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환경수용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이미 하수는 처리용량 초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쓰레기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환경부담을 제주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셈인데, 김 씨가 누구를 위한 공항인지 헛갈린다는 게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환경수용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까지처럼 많으면 좋다는 식으로 공항 하나를 더 짓는 건 제주를 파괴하는 일이며, 결국 공항 수용력 확대라는 당초 목표도 실패할 것으로 김 씨는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봐서 누가 옳니까 지금 육지에서도 일부러 제주도 쉬러 오고 여기서 살아보고

싶고 왔다가 땅값 올라가고 제주다움이 없어지고 똑같아요. 고향 찾아온 사람도 괜히 왔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미래에 보인다 그거죠.”

▶ 수산리 오은주



내 삶의 기본을 갖고 있는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제2공항 반대 이유로) 가장 크고

- 인터뷰 일시: 2020. 11. 21
- 장소: 난산리 면의마루 정자
- 업로드 일시: 2020. 12. 7
- 조회수: 1,167회
- 좋아요: 30회
- 나빠요: 3회
- 댓글: 6개(기타 1/부정 5)

※ <https://www.youtube.com/watch?v=SNPvxX9pvx8&t=52s>

“저는 성산읍 수산리 출신이에요 32회 졸업생이고 저희 가족 7명 어머니 아버지 포함 모든 가족이 수산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있을 때 돈을 모아서 주택을 짓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시면서 다시 학교가 살아났는데 그분들이 다시 마을을 떠나게 되면 학교는 100%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학교가 없어지고 내 삶의 기본을 갖고 있는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 (울먹이며) 제가 요즘 자꾸 울컥해서... 제2공항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풍족함 자존감 이런 게 다 이 마을에서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길을 가다보면 동네 삼촌이 어디 감시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걷다보면 아이고 누구 딸 어디 감시냐 이렇게 하고 다 삼촌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들이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많이 성숙했고 또 그 힘으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남은 생이 얼마 안 되는 어른들이 소음을 들으면서 돌아가셔야 되고 이런 게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평화롭게 살고 꿀농사 짓고 살았던 마을에 갑자기 와서 동네에 부동산업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가건물 같은 것도 갑자기 지어지고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전) 우리 아버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막 찾아와서 땅 파세요 막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제2공항은 1도 지역민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전에 갑자기 발표했어요. (근데 아는 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정보를 알아가지고 공항 부지 옆 땅 10만 평 샀다 누가 몇 만 평 샀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던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됐다고 보sey요?) 네 알려줘야죠. 특히 우리는 마을이 없어지진 않죠. 활주로 끝이고 안에 들어가 있

진 않기 때문에 이 신산 난산 이 지역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온평 여기는 이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려줘야죠. 유치원생 6~7살짜리도 뭐뭐 할 때 ‘너희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쫓겨나야 돼. 집을 놔두고 쫓겨나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는 건 진짜 비민주적인 거죠. 제주도는 4.3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거 (반대)하면 우린 죽어’라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 지금 (예정지) 지역에 살아서 쫓겨날 분이 다 그런 분들이신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건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아니죠. 옛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목소리를 내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유튜브 내용)

난산리 하늘에서 육중한 비행기 굉음이 들린다. 깜짝 놀라 올려다봤지만 아무 것도 없다. 그때 큰 나무 밑에서 낮잠을 즐기던 마을신이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한다. 한 문화예술단체가 제2공항을 주제로 마련한 퍼포먼스의 한 장면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마음이 무겁다. 수산1리에서 나고 자란 오은주 씨도 그렇다.

“(공연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공연 중간에 음향으로 비행기 소리가 계속 났잖아요. 공항이 된 후에 마을신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 하는 부분을 되게 감동 깊게 또 아프게 그려내신 거 같습니다.”

오은주 씨는 수산초등학교를 나왔다. 부모님 포함 모든 식구들이 수산초등학교 동문이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한때 폐교가 검토된 적이 있지만 동문들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막아내기도 하였다. 학교 근처에 무상임대주택을 지어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유치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존속시킨 학교지만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폐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오 씨는 보고 있다. 소음피해로 주민들도 떠나게 생겼는데 누가 오고 싶겠냐는 것이다. 결국 고령의 주민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생을 소음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오 씨는 못내 서럽다.

“울면 안 되죠. 이거 편집해주세요. (애써 웃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저는 지금 수산에 살고 있진 않아요. 제주시에서 살고 있지만 1주일에 몇 번 계속 수산을 오게 되는 거는 그리고 수산에 올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더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 마을의 어른들 모습이 보이고 그 어른들의 삶이 보이고 이 어른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되고 이러는 게 너무 좀 마음이 많이 그래가지고 더 울컥울컥 자꾸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오은주 씨 본인도 적당한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와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항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실은 남편하고 얘기했습니다. 은퇴를 할 시기가 되면 저는 수산에 올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공항이 생기면 물음표가 생겨요. 공항이 생기면 올 수 있을까? 안 생기면 100% 오겠다고 지금 마음은 단단히 먹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감상하고 나서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마을길을 걸었다. 구불구불 정겨운 돌담길이다. 감귤 수확을 하는 농부들,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보인다. 현재 제2공항 시계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멈춰있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도 잠시나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날, 이 마을들에서 어떤 울부짖음이 들려올지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 괜스레 눈시울이 불거졌다.

그림 2. 유튜브 이용 모습



※인터뷰(좌측)와 밑그림 촬영(우측) 모습

지금까지 제주 제2공항 반대 지역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편집해 유튜브로 방송한 실제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르포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실제 방송 내용은 당초 기획대로 2~3분 분량인데 보통 방송에서는 이렇게 길게 인터뷰 내용을 신지 않는다. 길어야 20~30초 정도이고 뉴스는 이보다도 훨씬 짧다. 욕심 같아선 르포 형식의 콘텐츠, 그러니까 위 르포 형식으로 기술한 내용을 대본 삼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었지만 현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유튜브에서나 가능한 이런 긴 호흡의 인터뷰도 포맷 자체가 주는 신선함이 있지만 아무래도 흥미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요청에 어렵게 응해준 분들에게 두고두고 미안한 부분이다.

5. 총족 : 이번 경험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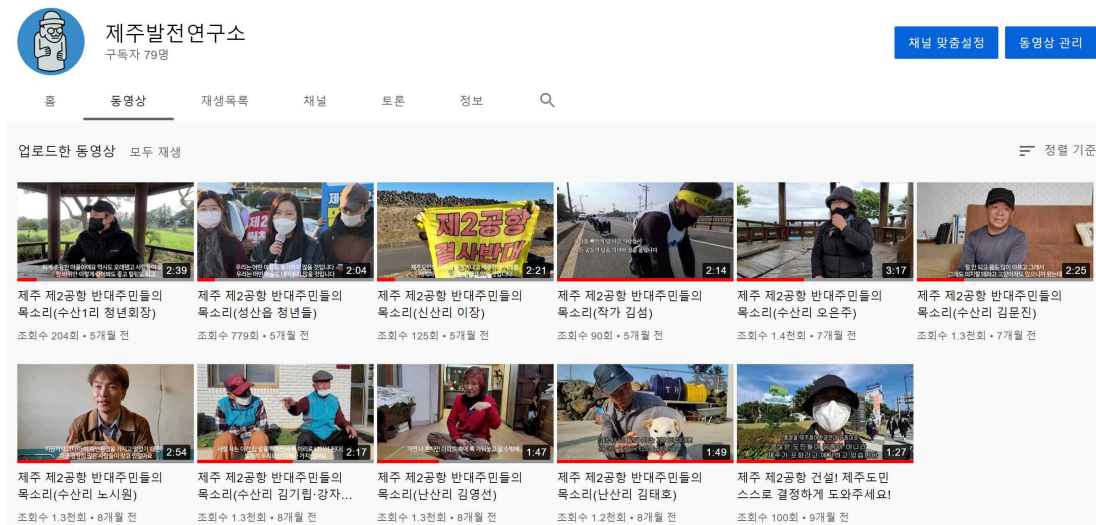
내가 사는 제주시와 제2공항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 그 거리를 주말마다 왕복하며 본업 외에 별도의 개인방송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다.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수시로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여기서 ‘의미있는’ 일이란 ‘언론인’으로서 PD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언론인이라면 응당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해결사가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최진용, 2002). 기득권 세력보다는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김연식·윤영철·오소현, 2005). 이러한 인식은 그간 PD저널리즘이 추구해 온 주요 가치로서, 나 역시 한때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을 때 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다. 그것이 이번 경험을 통해 되살아났고 그것을 다시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었다.

나의 채널에 콘텐츠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묘한 성취감을 주었다. 비록 물리적인 규모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방송이지만 방송사 사주가 된 기분도 들었다. 청년시절부터 몸담아 온 지금의 지역방송사에 대해 적잖은 애사심을 갖고 있지만 구성원으로서 갖는 마음과 사주로서 갖는 마음은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채널이 잘 돌아갈 수도,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면 조회수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갈 때마다, 그리고 일과시간 중에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찾아 조회수를 확인하게 되었다. 주식에 빠진 사람들이 수시로 주가를 확인하는 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유튜브 안에서 내 채널이 화제가 되어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치솟고 수익이 발생하는 상상에 빠지는 일도곤잘 있었다.

그림 3. 나의 첫 유튜브 채널



하지만 조회수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나의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접함으로써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특히 반대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일으키고 싶었지만 이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나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유튜브의 매력이지만 그것이 곧 누구나 본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다. 어지간해선 나의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것조차 힘들다.

그런데 홍보비만 집행하면 얼마든지 조회수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홍보비만큼 해당 콘텐츠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연관 콘텐츠 형태로 노출시켜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클릭 1회당 50원 정도가 지출된다. 이것이 유튜브

의 주된 수익원이다.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그런 식으로 조회수를 늘리고 있는데, 유튜브 등에서 9억 뷰를 달성해 화제가 된 한국관광공사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콘텐츠 역시 100억 원 넘는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21.10.19).

나의 경우 6개의 콘텐츠에 각각 50,000원씩(5,000원×10일) 모두 300,000원의 홍보비를 지출하여 편당 1,200회 안팎의 조회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방송 초기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채널이 알려져 홍보비 지출 없이도 일정 정도의 조회수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회수만큼 신경이 쓰이는 건 댓글이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이 있긴 하지만 시청소감이 올라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만큼 지역방송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댓글알림이 올 때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내용을 확인하곤 했는데 방송 내용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댓글에는 기분이 들떴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댓글에는 심란한 기분에 빠졌다. 반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함으로써 공감을 일으키고자 하였는데 실상은 그러한 기획의도가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총 24건의 댓글 중 인터뷰 내용을 부정하는 댓글이 16건으로 긍정하는 댓글 6건보다 훨씬 많았다.

표 5. 댓글 주요내용

	주요내용
<p>긍정 (6건 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원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곡해해서 듣는 분들은 투기꾼들일 거예요. • πππ 영상을 통해 접했네요... 반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πππ • 외지인 땅주인들은 공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곳 주민들은 나가면 고향마을은 없어지고 답답한 노릇이여...
<p>부정 (16건 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공익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돈 더 내나라? 시세+보상금까지 주는데 얼마나 많은 보상금을 원하는지 참... • 기존 공항도 폐쇄해서 고립되어 살아라! 농사지어 수확물은 누가 소비하냐? 좌빨이 사주하더냐??? • 왜 제주도 사람들은 나라 위한 일들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나? 환경만 지키면 적이 안 오냐? 전부 이상한 민족 아냐? • 저는 당신이 그저 불편함 호소를 통해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국익을 해치려는 공작원의 수행으로 보입니다.

반대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2공항에 대해 이미 고착된 생각이 이토록 견고하고 강경하다는 사실에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인터뷰에 나선 반대주민들이 이런 댓글들을 접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잖아도 주위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이미 깊은 대로 깊은 터였다.

제주 제2공항 사업예정지 반대주민들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부지선정 결과 발표 당시(2015년 11월 10일) 축하전화를 받은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한 마디로 ‘공항이 생겼으니 땅값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은 ‘뭘 모르는 소리’라고 항변한다. 땅값이 오르는 게 반가운 건 땅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거나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신들이 아니란 것이다. 이들은 땅값 상승이 오히려 세 부담만 늘리는 골칫거리로 여겨진다고도 했다. 제2공항 예정지엔 이러한 두 유형의 사람들, 땅값이 올라 좋겠다는 사람과 싫다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외부인들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을 몽땅그려 수혜자라 여기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려고 한다든가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땅을 매매 대상이나 개발 공간 정도로 인식하는 도시민들로서는 생업의 공간으로서의 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환경단체들도 이러한 의미의 땅은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다소 먼 개념이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값어치가 오른 땅을 팔아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으니 좋은 일 아니냐는 주변의 인식에 대해 ‘그럼 우리 마을은?’이란 대답이 돌아온다. 이 역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다니는 도시민들로서는 생소한 인식이다. 반대주민들에게는 대대로 지켜온 땅에서 농사지으며 정겨운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곳보다 더 좋은 곳이란 없다. 특히 농촌 고령화가 일반화된 지금 제2공항 예정지에도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해 살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다면 공항이 생겨 부럽다는 외부인과 ‘그건 뭘 모르는 소리’라는 반대주민 간 인식 차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나는 그 책임이 언론, 특히 기자저널리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요 논리는 ‘입지선정 부적절’과 ‘환경문제’ 두 가지이다. 4개 마을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공항이 들어설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공항이 4개 마을은 물론 제주 섬 전체의 환경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처한 상황별로 보다 다양하고 실존적인 반대이유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농부인 김태호 씨는 농사피해를, 고령인 김기립(80)·강자욱(83) 할아버지는 소음피해를, 귀향을 계획중인 오은주 씨는 공동체 파괴를,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김영선 씨는 전통문화 단절을 주요 반대요인으로 꼽았다. 반대운동에 열심인 노시원·김문진 씨 정도가 반대이유로 환경문제를 내세웠을 뿐 ‘입지선정 부적절’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언론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서현과 송철민, 이승환, 최낙진(2021)은 제주 제2공항 관련 제주지역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등 사업주체의 입장은 비중있게 전달한 반면 피해당사자인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장으로 들어가 최대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취재의 기본임에도, 또 그래야 특종도 나오는 것인데도 이러한 기본 원칙이 어느 순간 언론 일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신 객관성을 빌미로 해석이나 평가 없이 기계적 중립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남재일(2004)의 표현대로 “객관주의 실행준칙을 잘 준수하면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뉴스상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2공항에 대한 기사는 넘쳐나지만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듣지 않는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기자 저널리즘의 한계를 PD저널리즘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인데 그 실현 수단으로서 유튜브 역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기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취재원의 활용’과 이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확산이나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의 통로라는 비판이 많고 이로 인해 저널리즘으로서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그리고 나 역시 같은 이유로 유튜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용하기에 따라 유튜버 본인에게도, 또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또한 PD저널리즘의 부재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만 아니라 유튜브라는 대체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PD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만족감과는 별개로 나의 유튜브 이용은 2021년 2월 16일 11번째 콘텐츠를 업로드한 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그 이유를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의 ‘선택의 분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필요로 하는 노력’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클 때 사람들이 특정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했다. 기대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지속적인 이용이 힘든 것이다(Stanley J & Dennis K, 2019).

보상에 대한 기대 필요로 하는 노력

현업에 종사하면서, 그것도 방송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방송 활동을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쉽지 않았다. 아무리 유튜브 제작시스템이 간단하다 하더라도 나 같은 경우 단순한 1인방송이 아니어서 취재와 편집에 적잖은 시간이 들어갔다. 물론 조회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수익까지 발생한다면야 그러한 노력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 하지만 홍보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좀처럼 조회수를 올리기 힘든 것이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다. 나름 편당 5만원씩 총 5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하긴 했지만 제2공항 반대주민들이 카메라 앞에 선 용기와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액수다. 제2공항 반대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언론을 대신하겠다”며 인터뷰를 독려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그들을 이용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에 전념하는 것이다. 시간을 쪼개 만든 그럭저럭 볼 만한 콘텐츠가 아닌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고 보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하면 승산이 있다. 그러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유튜버 중 상위 10%만 연평균 소득이 2억원 정

도 될 뿐 하위 50%는 108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조건에 못 미쳐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세계일보, 2021.3.11.). ‘보상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해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직장인 유튜버들의 고민이 나와 같을 것이다.

결국 지역방송에서 PD저널리즘의 부활이 더욱 더 간절해지게 된다. 대안매체를 통해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닌 지금 자리에서 당당하게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기자 저널리즘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고, 보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인으로서의 PD상(象)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앞으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방송이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음은 분명하다.

V. 결론 및 함의

이번 연구의 특징은 지역방송 20년 차 PD인 나의 유튜브 경험을 자기민속지학으로 분석/기술함에 있어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자기민속지학은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경험을 통해 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기술된 나의 경험담은 ‘어느 정도’ 내가 소속된 지역방송 PD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욕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날 지역방송이 처한 현실과 그 속에서 좌절하고 고민하는 동시에 [동기]에서 표현된 대로 지역민들의 아픔에 대해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대]에서 보듯이 비록 레거시 미디어 시스템에 갇혀있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PD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면 다른 매체로의 이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역방송 PD들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처지를 함께 마음 아파할 줄 알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나아가 공의가 넘치는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그들은 [충족]에서와 같이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들이 많아져야 지역방송이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인데 지역방송 PD들의 정체성이나 직업적 만족도가 현재 어떠한지, 그리고 그 높고 낮음에 대한 요건 등을 밝혀내는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9년의 기간이 지역방송 PD로서 가장 자부심 넘치고 만족도 또한 높았다. 지금의 주52시간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밤낮 주말 할 것 없이 제작에 매달려야 하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적어도 언론인으로서 PD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지역방송 PD라면 응당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내가 하던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없는 지금 대부분의 PD들이 협찬사 홍보 프로그램이나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 아예 사업부서로 자리를 옮긴 PD들도 여럿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여건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다른 지역방송 PD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당연히 ‘나 PD 맞아?’라는 푸념이 나오고 더 이상 후배들에게도 지역방송 PD는 어떠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르치지 않는다. 협찬 프로그램 제작시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이나 노하우 정도만 알려줄 뿐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PD들이 많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PD저널리즘이 다시 뿌리내리고, 그래서 PD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자긍심도 높아질 줄로 안다.

그렇다면 지역방송에서 PD저널리즘의 부활은 이제 기대하기 힘든 것일까? 언제부터나 지역방송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에 뛰어드는 모습을 본다. 콘텐츠를 만들어도 시청자들이 보지 않으니 유튜브에 노출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견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유튜브용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 기존 프로그램을 재가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나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인데 과연 시청자들이 그런 사정까지 봐가며 지역방송의 유튜브 콘텐츠를 봐줄지 의문이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작 가능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시사 프로그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사 프로그램은 일반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출연료가 거의 들지 않고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구나 유튜브 시스템에선 장비 비용이 더욱 줄어들며 혼자서도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유튜브에선 해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작의 독립성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연 현장의 얘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주제와 논조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까지 방송사가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시사 프로그램 제작 당시 강정 해군기지나 영리병원 같은 대형 이슈가 있을 경우 논조와 방향에 대한 사측의 간섭이 적잖이 심했던 탓이다. 대국민 사기극 의혹이 일었던 ‘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에도 주최사인 ‘뉴세븐원더스’ 사무실이 있는 스위스 현지 취재까지 다녀와 놓고 요즘말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은’ 일화는 유명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협찬에 많은 부분 의존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의 돈을 쥐고 있으니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그토록 관철하고자 하는 제2공항에 대해 유튜브라 하더라도 지역방송 안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방법이 없진 않을 것이다. 지역방송의 경영난 속에서 사라져가는 PD저널리즘을 복원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와 정책적 고민들이 요구된다.

한편 자기민속지학의 경우 그 자체로 “성찰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훌륭한 질적 연구방법이지만 학문적 내공이 높지 않고서는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낀다. 많은 자기민속지학 연구들이 보조적 연구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본고에선 ‘이용과 충족’ 연구의 이론적 과정(욕구-동기-기대-이용-충족)을 가져와보았다. ‘이용과 충족’ 이론과 ‘자기민속지학’을 결합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효용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정 미디어 이용 경험을 비교적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기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방법을 향후 학교 현장 등에서 미디어 교육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싶다. 자신의 미디어 이용 행위에 대해 돌아보고 제대로 아는 것이 미디어 교육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을 다매체 다채널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용과 충족’ 이론이 가정하는 능동적인 이용 주체로서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중독적으로 미디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본고의 연구방법을 적용해 자신의 미디어 이용행위를 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성찰의 여러 결과물들을 놓고 내용분석을 한다면 기존의 5점척도 설문보다 모집단의 특성을 훨씬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초기 ‘이용과 충족’ 연구모형에서 나타나는 각 단계는 특별히 기술할 게 없는, 무의식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개념적인 것에 가깝다. TV나 라디오 같은 매스미디어와 관련, 그것이 출현한 초기 수용자들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기 매스미디어 효과연구에 ‘강효과 이론’이 대두된 것도, 또한 ‘이용과 충족’ 이론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용과 충족’ 이론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 다양한 매스미디어가 등장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특정 미디어를 선택해 이용하고 충족을 얻는 데에는 초기 ‘이용과 충족’ 연구자들이 수용자의 특징으로 전제한 ‘능동성’과 ‘목적 지향성’이 더욱 발휘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처럼 이용자가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경우 ‘능동성’과 ‘목적 지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그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분석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성찰이 선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물들을 양적연구에 접목한다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 즉 미약하나마 생산자로서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드러내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관련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이 논문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갈등 종식 방안으로 합의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 우세로 결론이 났는데도 제주도정이 계속 추진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작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관행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이다. 현지 취재를 통해 제주 제2공항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는데 방송국에서 허락해줄지 알기 어렵다.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참고문헌

- 강미정·조창환 (2020). 욕구 충족 영상 콘텐츠(브이로그 / ASMR / 먹방) 이용 동기, 수용자 특성, 시청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호, 73-98.
- 강연곤 (2011). 걸그룹 삼촌팬을 위한 변명.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05), 295-312.
- 강준만·전상민 (2019). ‘경로의존’의 뒷에 갇힌 지역언론학 :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3대 ‘구성의 오류’. <한국언론학보>, 63권 3호, 7-32.
- 강형철 (2000).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과 과제. <PD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 서울: 나남.
- 김도연 (2020, 5, 30) SBS 중편 전환? “대주주, 후폭풍 감당하겠나”.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77>.
- 김미애 (2011). 자기민속지학을 통해 본 가부장제 사회의 경험과 부모양성 사용.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선 (2004). 재택 공간에서 미디어 대체 가능성의 재평가 : 웹 이용과 텔레비전 시청 행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400-428.
- 김봉철·문주원·최명일 (2014). 중학생들의 교육적-오락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요인 구조의 타당화 검증 : KBS-2TV <위기탈출 넘버원> 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4호, 263-288.
- 김성경 (2016). 공감의 윤리, 그 (불)가능성 - 필드에서의 연구자의 마음. <북한학연구>, 12권 1호, 107-146.
- 김성우 (2015). 기자저널리즘과 PD저널리즘의 공정성 비교 연구 : 경향신문과 PD수첩의 ‘가습기살균제’ 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식·윤영철·오소현 (2005). PD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제작관행 : MBC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79-124.
- 김연식·조성호 (2008). PD저널리즘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2호, 149-176.
- 김영찬 (2011). 1970년대 텔레비전 외화시리즈 수용 연구: 자기민속지학과 구술사

-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정 (20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 페이스북 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011 20호, 71-105.
- 김정기 (2016). <이용과 충족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호 (2018, 1, 2).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발표 2년째 성산 민심도 ‘뒤숭숭’. <제주 의소리>, URL: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98737>
- 김채환 (2008). UCC의 이용동기와 재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 김채환·안수근 (2004). 온라인 신문의 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4 26권, 105-134.
- 김현정 (2020).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동기가 지속적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 단체 채팅방 크기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권 2호, 71-92.
- 김환희 (2016). 애니메이션 팬 활동으로 재 정의되는 여성의 관계와 의미. <미디어, 젠더 & 문화>, 31권 3호, 39-172.
- 김효정 (2017). 인스타그램 사진 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용과 충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권 11호, 252-263.
- 김희정 (2021). 카메룬 코이카 해외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적 성찰: 자기민속지학적 방법을 배경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문현숙 (2020, 6, 17) 경영난 지상과 ‘지역방송국 통합’ 뜨거운 감자.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49608.html>
- 박용기 (2010). 스마트폰 활성화가 통신방송시장에 미칠 영향 :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통신방송시장의 생태계 변화 및 통신사업자 전략에 주는 시사점 진단: 이용자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5, 141-150.
- 박인곤·신동희 (2010).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용과 충족, 의존도, 수용자 혁신성이 스마트폰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 10권 4호, 192-225.
- 박조원·송요셉 (2010). 대학생의 온라인 게임 이용 동기가 체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131-154.
- 박지훈 (2018). 아이돌 ‘커플팬’에 대한 연구: ‘윤재팬’에 관한 자기민속지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백중현 (2021, 10, 19). '범 내려온다' 9억뷰 대박의 민낯...광고비 100억 넘게 썼다. <중앙일보>,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132?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_fb&utm_content=211019#home
- 변현진 (2018).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이용 환경 특성과 인기 채널 분석 및 함의점 고찰. <조형미디어학>, 21권 4호, 227-239.
- 서동욱·이정훈·이상은 (2017). 사회적 시청에서 콘텐츠 몰입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 : 이용과 충족 이론을 중심으로. <정보와사회>, 18권 3호, 31-62.
- 서종민·안진용 (2019, 7, 24). 구급차 절도·4세아 운전... 대박에 눈 먼 유튜브버들. <문화일보>.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2401071021335001>
- 성윤숙 (2003). 청소년의 삶의 질과 온라인 게임 이용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권 2호, 93-108.
- 성명훈·이인희 (2007). 동영상 UCC의 이용 동기와 만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권 4호, 45-79.
- 손승혜 (2002). 글로벌 텔레비전 시대의 수용자 능동성 : 심층 인터뷰를 이용한 한국의 초국가적 위성방송 시청자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6호, 127-152.
- 손영준·김옥태 (2011).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경험, 구입동기가 스마트폰 유용성,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286-311.
- 신선호·최양호 (2016).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 동기와 계획행동모형 변인이 충족 및 재제작의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6권 4호.
- 안동근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계

- 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권 4호, 259-285.
- 안진 (2015). 나는 왜 백인 출연자를 선택하는가? : 어느 TV 제작자의 자기민속지학적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0권 3호, 83-121.
- 양다훈 (2021, 3, 11). “유튜브 접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1인 방송장비 판매글 증가.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1512089?OutUrl=naver>
- 오원환 (2014). <다큐멘터리 스타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중서 (2011).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메멘토 모리 - 자기민속지학적 방법론을 통한 성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37권 0호.
- 오중환·최병일 (2004). 무선인터넷의 매체 특성과 수용자의 이용 충족 연구. <언론과학연구>, 4권 1호, 114-155.
- 원숙경·김대경·이범수 (2007). 포털 뉴스 이용이 전통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 유세경·김미선 (2002). 인터넷 영화 사이트 이용자의 이용동기와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권 2호, 40-72.
- 윤지영·유지윤·이장석 (2020). 유튜브 브이로그 이용 동기 및 이용자 특성이 이용만족 및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4호, 189-201.
- 이기형 (2013). 소통과 감응을 지향하는 학문적인 글쓰기를 위한 문제의식과 대안의 추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2호, 250-302.
- 이동후 (2016). 1990년대 미디어 환경과 자아 경험: 미디어 기억의 자기 구술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17호, 3-39.
- 이서현·송철민·이승환·최낙진 (2021). 지역언론은 제2공항 예정지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언론보도와 주민인터뷰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6권, 133-170.
- 이예진 (2021, 1, 7). 역사 속으로 사라질 ‘PD저널리즘’. <단비뉴스>, URL: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54>
- 이은선·김중인·김미경 (2020). 유튜브 이용 동기 및 친밀도가 이용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2호, 114-126.
- 이은영 (2015). 친밀함을 상징권력화 하는 운동권의 호칭문화-자기민속지학적 방

- 법을 통해.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기·최민음·박성복(2012). 대학생들의 신문 이용동기와 기술수용모델 변인이 유료 모바일 뉴스 콘텐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경제와 문화>, 10권 3호, 129-172.
- 이재신·노동환 (2008). 시청동기가 미디어 선택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들의 미국 드라마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5호. 246-286.
- 이재형 (2021, 6, 18) 고사 위기 지역방송, 어디서 활로 찾나. <Pd JOURNAL>. URL:<http://www.pdjour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05>
- 이준호 (2014). 미국 중부 지역 한국 교민의 문화적응 요인과 방송 이용 특성. <미국학논집>, 46권 2호, 93-129.
- 이진옥 (2016). WOMENCROSSDMZ: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경계 넘기. <2016 여성학논집>, 33권 2호, 63-97.
- 임성택(2011). 광고에서 사용된 비주얼 스캔들의 흐름과 효과 - 2011년 슈퍼볼 광고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37권 0호, 103-113.
- 임양준 (2008). 대학생들의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시청동기 및 만족도 연구 :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권 1호, 303-336.
- 임연희 (2010). 5대 지방선거와 트위터 : 대전·충남 시·도지사 후보자들의 이용과 충족, 규제에 관한 태도. <사회과학 담론과 정>, 3권 2호, 67-98.
- 임정수 (2006). 디지털 카메라의 이용 충족과 적소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0권 1호, 126-147.
- 장윤재·김미라 (2016). 정서적 허기인가 정보와 오락의 추구인가? : 먹방 · 국방 시청동기와 시청경험, 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152-185.
- 장은영 (2017). 자기민속지학적 글쓰기를 적용한 학술적 글쓰기의 방향과 수업 방안. <리터러시 연구>, 21권 21호, 157-187.
- 전규찬 (2014). '재치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유년기 라디오 체험에 관한 짧은 자기민속지학.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11, 73-74.
- 전오열·이희중·나미수 (2020). 경영 악화에 따른 지역방송사 내부 조직과 구성원의 인식 변화 :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권 2호,

- 427-437.
- 정재민·김영주 (2007). 노인층의 텔레비전 이용행태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172-200.
- 조성호·박희숙 (200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텔레비전 이용 동기와 만족 : 대도시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방송학보>, 23권 6호, 243-283.
- 조은영·최윤정 (2014). 왜 TV를 시청하며 온라인 대화를 나누는가? : '사회적 시청'의 동기, 행위, 만족에 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88호. 9-46.
- 조정현·반현 (2006). 포털 뉴스 이용동기가 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0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7권 17호, 193-232.
- 주영재 (2019, 11, 23). 제주도의 '불청객' 제주 제2공항... 난개발과 개발 사이.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911231042021>
- 주은신 (2020). 지역 언론 유튜브 채널의 특징과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지역 일간지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권 3호, 109-154.
- 주지혁 (2019). 유튜브 구독자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 의례적 이용동기, 도구적 이용동기, 몰입 및 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권 12호, 223-233.
- 주형일 (2007).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언론과 사회>, 15권 3호, 2-36.
- 주형일 (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13호, 75-114.
- 주형일 (2013). 자기민속지학의 쟁점과 현황. <사회과학논집>, 44권 1호, 47-66.
- 진중우 (2021). 유튜브 이용 동기와 콘텐츠 정향이 시청에 미치는 영향. <OOH광고학연구>. 18권 2호, 5-21.
- 차배근 (1986).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경기도: 나남.
- 최민재 (2009).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권 1호, 198-227.
- 최영목 (2011). PD정신 혹은 PD저널리즘.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11, 128.

- 최화영·하승태 (2021).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경쟁우위에 관한 적소 분석 연구: 이용자 충족요인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5권 1호, 208-237
- 하유미 (2007). 동일 주제와 형식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주체에 따른 공정성과 심층성 비교 연구 : PD 저널리즘과 기자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뉴스미디어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미디어 이슈>. 7권 1호, 2-15.
- 한 선 (2021, 6, 15). 방송국 의지에 달린 ‘지역방송 시사보도’.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9512.html>
- 한영주·하주용 (2019). 미디어 이용 동기, 개인적 성향, 인지된 개혁의 특성이 1인 방송 시청에 미치는 영향 : ‘이용과 충족’ 이론과 ‘개혁의 확산’ 이론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107호, 152-190.
- 한우리 (2012). 사회운동과 대중문화 경계를 협상하기 : 20대 여성주의자의 아이돌 팬 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은경·송석재·임한나 (2011). 소셜 커머스의 이용 동기와 만족,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 이용과 충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3권 3호, 298-326
- 함한희 (2002)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 새만금 지역의 경우. <환경사회학연구>, 2호, 261-283.
- 허경호 (2005). 시청조절 능력과 텔레비전의 이용과 충족.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11, 570.
- 허준기 (2016). 장애 정체화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식 및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학회지>, 2016, 5-32.
- 현영호 (2011). 관광객들의 모바일 이용동기, 모바일 관광 정보 유형, 모바일 이용의도간 구조적 관계 고찰 : 이용과 충족접근 이론의 적용. <대한경영학회지>, 24권 4호, 1943-1960.
- 홍자경·백영민 (2016). 시청자의 가구형태는 음식프로그램 시청효과 발생과정에

-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조절된 매개과정 모형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127-153.
- 황용석 (2017). 페이크 뉴스 현상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제1회 KISO 포럼 :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23-60.
- 황하성·김정혜 (2006). 서울 지역 20대 유권자의 팟캐스트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나는 꿈수다 청취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9권 3호, 151-184.
- Berelson, L. B. (1945). "What Missing the Newspaper Means" in P. F. Lazarsfeld and F. N. Stanton(eds.), *Radio Research, 1948~1949*.
- Berry, K. (2006). Implicated audience members seeks understanding: Reexamining the "gift" of auto \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3), Article 9. Retrieved June 7, 2007.
- Blumler, Jay G. & McQuail, D. (1968). *Television in Politics*.
- Bochner, A. P. (2001). "Narrative's virtues" *Qualitative Inquiry* 7(2), 131-157.
- Carr, E. H. (1998). 김승일 (역) (1998).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 Chang, H., Ngunjiri, F. & Hernandez, K. (2013).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CA: Left Coast Press.
- Ellis, C. (1997). "Exocative autoethnography: Writing emotionally about our lives". W. G. Ticmcy & Y. S. Lincoln eds., *Representation and the tex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15-139*.
- Ellis, C. & Bochner. A. P. (2000).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reflexivity.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733-768). Thousand Oaks, CA: Sage.
- Foley, D. E. (2002). "Critical ethnography: the reflexive turn". *Studies in Education*, 15(5), 469-490.
- Hayano, D. (1979) "Auto ethnography. ' Paradigms, problems and prospects'" *Human Organization*, 38(1), 99-104.
- Herzog, H. (1944).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Daytime Serial Listeners?", in P. F. Lazarsfeld and F. N. Stanton(eds.), *Radio Research*,

- 1942~1943.
- Howitt, D. (1982). *The Mass Media and Social Problems*(Oxford: Pergamon Press, 1982), 14.
- Katz, E., Blumler. J. & Gurevitch. M. (1974).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s: Current Perspectives on Gratification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atz, E. & Foulkes. D. (1962). “On the Use of the Mass Media as ‘Escape’ : Clarification of a Concept” *Public Opinion Quarterly*, 26(1962), pp. 372-388.
- Katz, E., Gurevitch. M. & Hass. (1973). “On the Use of the Mass Media for Important Things” *Americas Sociological Review*, 38(1973), 164-181.
- Lin, C. (1999). “Uses and gratifications,” *Clarifying Communication Theories: A Hands-on Approach*, 199-208.
- McLuhan, M (1964). 김상호 (역) (2011).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McQuail, D., Blumler. J. G. & Brown. J. R. (1972) “The Television Audience : A Revised Perspective” in Denis McQuail(ed.).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Harmondworth, England: Penguin, 1972), 135-165.
- McQuail, D., Sven Windahl. (1981). *Communication Models for the Study of Mass Communications*(Beverly Hills, Calif. : Sage, 1974), 20.
- Nelson, R. N. (2018). “Research on Children and Advertising Then and No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Advertising*, Vol.47, No.4, 301-308, 2018.
- Nordenstreng, K. (1970). Comments on ‘Gratification Research’ in *Broadcasting Public Opinion Quarterly*, 34.
- Polkinghorne, D. (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Systems of inquiry*. 김승현 외(역)(2001), <사회과학방법론>, 일신사.
- Roger, D. W. and Dominick. J. R. (2013). *Mass Media Research*. 유재천·김동규(역)(2013). <매스미디어연구방법론>, 한경사.

- Roose, K. (2019, 3, 29). YouTube's Product Chief on Online Radicalization and Algorithmic Rabbit Holes.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19/03/29/technology/youtubeonline-extremism.html>
- Stanley J & Dennis K (2019)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토대, 논쟁, 미래>. 김훈
순 외(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Weiss, W. (1971). "Mass Communic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2.
- Suchman, E. A. (1942). "An Invitation to Music" in Paul F. Lazarsfeld and
Frank Stanton(eds.), Radio Research, 1941.

부록

#1.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경과

1990. 4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계획 발표
2007. 12	•이명박 대통령, 제주 신공항개발사업 공약
2008. 5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
7	•국토교통연구원, 제주공항마스터플랜 용역 '제주공항 2025년 포화'
2009. 2	•제주도의회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2010. 6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공청회 •제주도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추진(국토연구원)
2011. 1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고시 '제주공항 2025년 포화'
2012. 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12	•박근혜 대통령,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공약
2014. 9	•국토교통부,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제주공항 2018년 포화'
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계획안에 대한 도민설명회 개최 •원희룡 지사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 시 제2공항 지원 건의
12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2015. 4~5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도민토론회 및 도민설명회 개최
6	•제주공항 단기 대책 발표→고속탈출유도로 시설 및 터미널 증축 등
9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지역설명회 개최
11.10	•국토교통부,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11	•사업 발표지 주민들, 결사반대 천명
2016.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신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제2공항 건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
7	•마을별 비대위 협의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로 정식출범
2017. 5	•문재인 대통령, 제2공항 개항 지원 공약
7	•제주 제2공항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1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출범
2018. 6~11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검토위원회 '18.09 ~ '18.12)
12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
2019. 4~6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2개월)
6. 19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 및 최종보고회(무산)
8	•제2공항 TV토론회(3회)
9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서 도의회 제출 / 원희룡 지사 불가 입장 확인 •국토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10	•반대단체 단식농성 및 광화문 앞 천막농성 돌입
10~1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 수립
11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론화 지지발언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 구성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12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12. 19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정/보완' 결정→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일정 차질
2020. 7	•제2공항 쟁점 해소 공개 연속토론회 개최
향후	•기본계획 고시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실시계획고시→토지보상→건설공사

#2.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²⁵⁾

▶ 온평리(688세대 1,465명)

단일 자연부락으로 마을 안에는 아열대 식물이 울타리마다 마을 전체를 덮을 만큼 울창하고, 해안선의 길이가 무려 6km에 달해 취락이 해안선을 따라 3km나 길게 형성되어 있다. 삼신인이 세 공주를 맞아 혼인을 치른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열운이'라고 불렀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입구쪽에 해당(공항 부지의 75% 편입)

▶ 난산리(283세대 536명)

천년의 역사와 선량한 심성을 고이 간직한 조용한 마을이다. 토질이 비옥해 취락형성에 있어서 천혜적인 입지 조건을 갖췄으며 특히 과수재배가 잘 된다. 주민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축산업이 그 다음이다. 과거에는 초석(띠자리)짜기나 뜸짜기, 죽세공(대바구니)품 제작 같은 부업도 성행했다. 지금은 감귤, 유채, 감자, 당근 농사를 많이 한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활주로 측면 철조망 바깥쪽에 해당

▶ 수산1리(481세대 1,035명)

지방도 1136호선을 끼고 있어 성산일출봉, 성읍민속마을, 일출랜드, 섭지코지 등 동부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지이다. 인근 지역에 방묘, 지석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석기가 발견되는 등 상당한 고촌(古村)으로 알려져 있다.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양촌(良村)으로서의 입지가 굳어졌으며 오름과 감귤농원들이 많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북쪽 이착륙 지점에 해당

▶ 신산리(558세대 1,219명)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갯바위 낚시터와 용천수욕장이 있으며, 마을 주봉인 독지봉에서의 일출과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주요 농산물로는 감자, 키위, 녹차, 월동무 등이 있고 전복, 소라, 해삼 등 해산물도 유명하다. 이농현상이 많은 타 지역과 달리 회원제 청년회를 운영하며 활동적이고 주민 간 협동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남쪽 이착륙 지점에 해당

25) 출처: 마을 홈페이지 / ()는 2017년 2월 기준

Abstract

YouTube usage and reflection of a local broadcasting PD with 20 years of experience

Chul-min Song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pplied the 'use and fulfillment' research model to self-ethnographically examining my YouTube experience as a PD with 20 years of local broadcasting. The researcher's motivation to use YouTube is to reflect on the situation in which he cannot play a role as a journalist on the local issue of Jeju Second Airport. In the reality that exploration programs by PDs disappear one by one due to the deepening financial difficulties of local broadcasting, YouTube was used as an alternative medium to realize PD journalism.

Despite the merits and values of journalism that anyone can become a producer and have their own voice, YouTube is being treated as a major culprit in the spread of confirmation bias and fake news. For this reason, there are also strong voices against classifying YouTube as journalism. Although the researcher myself belonged to that voice, through the YouTube experience, I was able to realize PD journalism, which existed only as a desire because I was blocked by the wall of reality,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identity of the PD as a journalist. And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local

broadcasters activate PD journalism using the YouTube system.

Self-ethnography, used as a research method in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society and culture to which the researcher belongs by reflecting on his/her own personal experiences. Although the researcher's YouTube experience is personal, analyzing it is also a process of properl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the local broadcaster to which the researcher belongs, especially the local broadcaster PD. Such self-ethnographic studies are sometimes conducted by grafting other auxiliary analysis methods, but in this paper, the 'use and fulfillment' theory is applied. According to the 'use and gratification' theory, in order to satisfy their needs, recipients select a specific media among competing media, and the selection is repeated as the satisfaction of their needs is strengthened. This process can be presented in five stages, that is, [needs-motivation-expectation-use-fulfillment]. As a result of using this five-stage model as a frame of composition in autoethnographic description, it is confirmed that it is beneficial for revealing one's own media experience.

Kew words : local broadcasting, PD Journalism, YouTube, Uses and Gratifications, auto-ethnography